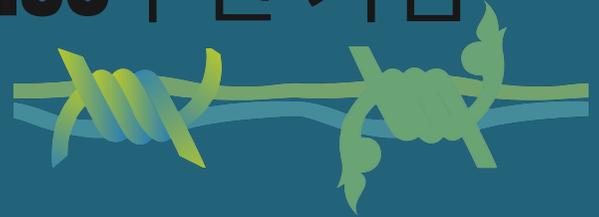


# 총회 워크북 (초안)



제27차 총회  
선교와 증언 사역  
150주년 기념



인내로써  
증거하라

회의의 분별을 준비하며





# 머리말

1. 치앙마이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27차 총회는 세계 개혁교회커뮤니언(WCRC)과 그 전신의 선교와 증언사역 1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하나님의 변혁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했던 개혁주의 가족들의 의미 있는 150년간의 여정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 간략한 역사

2. 19세기 마지막 분기 동안, 당시 장로교 체제를 고수하는 개혁교회연맹(*The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은 식민주의 세력에 도전하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20세기 첫 분기에 개혁교회연맹은 각 지역의 소수 개혁 교회와 함께하며 그들을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20세기 두 번째 분기에 개혁교회연맹은 세계협의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계협의회를 환영하고 격려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에큐메니컬 역할을 최대한 발휘했고, 세계협의회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세계협의회가 나치즘에 맞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세 번째와 네 번째 분기에 개혁교회연맹은 인종차별, 특히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서 악랄한 형태로 나타난 인종차별과 성 불평등, 경제 및 기후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개혁교회연맹은 세계개혁교회연맹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1982년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신앙 선언(*Status Confessionis*), 성 평등 문제를 다룬 행동 촉구 프로그램(*PACT*), 경제 및 기후 정의 문제를 다룬 신앙 고백(*Processus confessionis*) 등이 있습니다.
3. 21세기 첫 분기에는 아크라 신앙고백의 결정적인 공표와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주요 지표이며, 20세기를 특징짓던 많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왔습니다. 이 시대에 개혁교회연맹은 정의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소명을 실천했습니다. 2010년 세계개혁교회연맹(*The World Alliance Reformed Churches, WARC*)과 개혁교회연합 (*The Reformed Ecumenical Council, REC*)의 통합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름인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WCRC는 회원 교회들이 어려운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 세계의 갈등과 그 갈등이 전체 인구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WCRC의 주요 관심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줄기들

4. 이 긴 역사를 이어주는 줄기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정의와 변혁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며, 이는 상위기관 안에 속한 조직과 회원 교회로서의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느끼는 증언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WCRC와 회원 교회가 응답해온 성경적 부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 악에 맞서 두려움 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WCRC는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만 오는 사기꾼(요10:9)과 달리 오직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10:10)임을 감히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150년 동안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헌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5. 변혁에 있어 축하할 만한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불의와 지배, 고통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27차 총회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회의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차 총회의 주제는 우리에게 다른 길, 인내의 길, "인내로써 증거하라"고 촉구합니다.
6.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선구자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하라고 촉구합니다(히12:1-2). 현재 세계의 상황과 불의와 악의 세력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력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빌론과 악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분열의 세력에 저항하고, 함께 바로 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다시 상기합니다. 14절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단순히 마술처럼 좋은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내를 통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본질입니다. 인내는 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수무드와 샬롬

7.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배운 수무드(*Sumud*)라는 단어는 인내심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관점입니다. 수무드는 확고함(*steadfastness*), 회복력(*resilience*), 인내력(*perseverance*)으로 번역됩니다. 수무드는 이 땅에서 억압 받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고통과 박해, 불의를 정의라는 대의와 역사적 뿌리를 향한 투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무드는 개인과 공동체가 억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불의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8. 이 워크북을 통해 우리는 수무드를 주된 관점으로 삼아 다양한 억압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많은 투쟁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고, 상호 연대에 기반한 행동 방안을 제안합니다. 수무드는 집단적, 개인적 불의에 대한 대응의 중심적 가치를 구성합니다. 수무드는 그 확고함과 회복력, 인내를 통해 진정한 히브리어 개념인 샬롬으로 나아가는 주요 경로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즉 수무드 없이는 진정 의미의 평화(샬롬)를 세우는 공동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워크북 길잡이

9. 이 워크북은 우리의 여정을 위한 주요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이 기획문서(Concept paper)는 세계 각 지역에서 모인 회원 교회들을 대표하는 기획위원회에 의해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인 실행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기 전, 회원 교회의 질적인 의견을 받는 것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 교회들이 이 워크북에 참여하고, 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워크북을 읽고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통해 WCRC와 다양한 상황의 회원 교회들에 의해 워크북이 완성됩니다.
10. “안전한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와 여정으로, 다음 정거장은 치앙마이이며, 그곳이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 기대합니다.

Setri Nyomi 세트리 니오미  
Interim General Secretary 임시 사무총장

# 목차:

<b>머리말</b> .....	<b>1</b>
간략한 역사 .....	1
연결된 줄기들 .....	1
수무드와 살롬 .....	2
워크북 길잡이 .....	3
<b>서문</b> .....	<b>6</b>
WCRC의 비전과 사명 준비 .....	6
WCRC: 분별하는 커뮤니티언 .....	6
네 개의 동사와 다섯 가지 행동 .....	7
<b>워크북 사용 방법</b> .....	<b>9</b>
<b>P1: 정의로운 커뮤니티언 구축</b> .....	<b>10</b>
서문 .....	10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	10
"인내로써 증거하라" 의도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커뮤니티언으로 부름 .....	12
커뮤니언에 대한 성찰 .....	14
토론 질문 .....	20
"인내로써 증거하라" 의도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커뮤니티언에 대한 부름 .....	21
<b>P2: 정의를 위한 계약</b> .....	<b>23</b>
서문 .....	23
분별 .....	24
고백 .....	27
증언 .....	29
토론 질문 .....	31
<b>P3: '인내로써의 증거'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신학</b> .....	<b>34</b>
서문 .....	34
인내의 신학을 향하여 .....	34
인내로써 증거를 위한 신학 '하기'(DOING THEOLOGY) .....	36
토론 질문 .....	45
<b>P4: 선교는 인내로써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b> .....	<b>48</b>
서문 .....	48
선교와 정착민 식민주의 .....	49
군사화된 선교 .....	52
결론 .....	55
토론 질문: .....	57
<b>P5: 하나님이 준비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일함</b> .....	<b>59</b>
서문 .....	59
토론 질문 .....	68
<b>원주민에 대한 WCRC의 헌신: 대화에의 초대</b> .....	<b>71</b>
머리말: .....	71

대화의 초대장 .....	71
권장 사항 .....	82



# 서문

## WCRC의 비전과 사명 준비

헌법 제7조에 따르면, 총회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주요 운영 기관"이며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이 기구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 의제의 대부분은 WCRC의 비전과 사명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 27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WCRC의 비전과 사명을 형성하는데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참여적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2024년 상반기 동안, WCRC의 회원 교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실무 그룹은 WCRC의 사역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기획문서를 고안했습니다. 이 개념서들은 각 영역에서 WCRC의 비전과 사명을 안내하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기반은 2026-2032년 WCRC 전략 계획 개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 이 기획문서는 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Strategic Planning Programme Group, SPPG**)과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이후 이 피드백은 본문에 통합되었습니다.
3. 2024년 9월, 우리는 총회 워크북의 초안을 회원 교회 및 파트너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2025년 2월 말까지 질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드백을 받은 후, 실무 그룹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컨셉 노트를 개발하고 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5. 총회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WCRC의 비전과 사명을 안내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6. 총회가 끝난 후, SPPG는 이러한 총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2026년-2032년 전략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 WCRC: 분별하는 커뮤니티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신자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기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미가 6:8).

우리는 1571년 엠덴 총회가 정의한 것처럼 개혁주의 총회 전통의 정신에 따라 2026년-2032년 기간 동안 WCRC의 비전과 사명을 형성하는 참여 과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셨습니다. 즉, 개인에게 전체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매우 특정한 분량과 그 은사의 일정 부분만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여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 간에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위한 도구이자,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은사의 공동체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서로 연합하는 신자들이 많을수록, 모든 이를 위한 은혜의 흐름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그들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할 경우,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박탈하게 됩니다."<sup>1</sup>

WCRC는 이 공의회 신학을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베소서 5:17) 이해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공동의 다짐은 우리 사역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확인됩니다..., [...]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도자이자 분별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충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총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간절히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 총회의 각 참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유의 은사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의 기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성령께서 총회를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다짐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실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sup>2</sup>

## 네 개의 동사와 다섯 가지 행동

이 워크북의 기획문서는 개혁주의 전통과 관련하여 인내로서의 증거를 위한 신학적 자료를 모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자아 이해를 설명하는 네 개의 동사를 따릅니다: 분별, 고백, 증언, 함께 개혁함.

- WCRC는 정의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헌신함으로써 시대의 징조와 행동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분별한다.
- WCRC는 종교개혁의 미완료 안건을 계속해서 실행하며, 독일 고백교회, 벨라 신앙고백 공동체, 그리고 아크라 신앙고백에 영감을 받은 신앙고백의 공동체이다.
- WCRC는 죽음으로 이끄는 체제와 구조를 변혁시키고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
-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WCRC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참여한다.

이 네 가지 동사는 WCRC의 사역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행동을 형성합니다:

- P1: 정의로운 커뮤니티 구축;
- P2: 정의를 위한 계약;
- P3: 변혁을 위한 신학‘하기’;
- P4: 선교는 인내로써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sup>1</sup> M. Freudenberg 및 A. Siller (ed.), Emden Synode 1571 - Wesen und Wirkungen eines Grundtext der Moderne, 반덴호크 und 루프레히트, 괴팅겐 2020, p. 68f, [[https://www.emder-synode-1571.de/Das\\_Einladungsschreiben\\_zur\\_Emden\\_Synode\\_von\\_1571-26856-0-0-75.html](https://www.emder-synode-1571.de/Das_Einladungsschreiben_zur_Emden_Synode_von_1571-26856-0-0-75.html)].

<sup>2</sup> 제26차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총회 자료집, 독일 라이프치히, 2017년 6월 29일 - 7월 7일, 93f.

- P5: 하나님이 준비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일함.

## 워크북 사용 방법

우리는 WCRC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에게 이 워크북의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인 조언을 요청합니다. 모든 분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워크북을 지역 노회와 개교회, 신학교 및 귀하의 교회의 다양한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덴 총회에서 배운 것처럼, 분별력은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폭넓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기 원합니다.

WCRC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룹이 모든 문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관심 분야에 가까운 기획문서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기획문서는 논의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질문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각 문서에 제공된 신학적 기반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총회와 전략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답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rc.eu**

# P1: 정의로운 커뮤니티 구축

우리는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신학 네트워크로부터 *Communion* 커뮤니티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이 개념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crce.eu](mailto:gc2025@wcrce.eu).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렴한 의견에 따라 기획문서를 수정한 뒤, 총회의 심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문

1.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커뮤니티으로 부름받았고 정의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전체적이고 공정한 참여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기후 재앙, 전쟁, 대량 학살, 경찰 잔혹행위로 인해 증가하는 인종 간 긴장, 만연한 여성 혐오, 정치적 양극화, 파시즘 직전까지 치달는 극우 운동의 맥락에서, 일치와 커뮤니티언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성서의 커뮤니티언 사상은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원수 사랑이라는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3. 우리는 분열, 우월주의, 그리고 갈등이 점점 더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초래하는 폭력, 불평등, 불공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저항적인 공동체의 징후, 재연합(re-*communion*), 대항 연대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주요 공동체가 기후 정의, 인종 관련 정의, 젠더정의, 토지 반환, 보상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힘에 저항하기 위해 커뮤니티언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의에 대한 어떠한 헌신도 있을 수 없으며, 커뮤니티언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현실에서 정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커뮤니티언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WCRC에게 있어 COMMUNION과 JUSTICE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4. 총회는 우리 모두가 극심한, 상호 연결된 위기와 깊은 도전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증거할 것을 지속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기후 비상사태에서부터 집단학살적 민족주의, 세계적 인종 차별에서 가정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반(反)공동체적(un-*communion*)'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자원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세기동안 전해진 교활한 방식이며, 고의적이고 교활하게 생명과 귀중한 창조물을 남영하는 방식이며, 변혁보다는 변질을 위한 권력의 이해관계를 성립하는 의도적이고 정교한 수단입니다.
5. WCRC는 우리의 증언이 예언자적, 성서적, 관계사에 기반을 두고, 용기 있는 증언의 역사와 동시에 죄악된 분열로 훼손된 역사인 커뮤니티언의 정체성과 온전함을 기념하고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글로벌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커뮤니티언을 드러내고 전복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에 나아갑니다.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배고픈 이들이 있는 반면, 세상의 자원으로 배가 부른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전 11:21).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공정하고 관대하며 진정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 지구, 그리고 창조주와의 깊은 교제로 이끌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의 실천이 제국이 유지하는 불평등과 비대칭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6. 커뮤니티의 긴박함은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착취

7. 우리 이웃의 땅은 여전히 탐욕과 강력한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은 오늘날에도 식민지 세력에게 오랫동안 빼앗긴 조상의 땅에서 그 손실에 대해 증언하며 땅을 되찾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는 자본과 자본의 주권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부차적인 것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웃이자 어머니이자 고향인 지구는 전례 없는 속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8. WWF에 따르면, 우리는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지구의 온도를 1.1°C 높였으며, 이는 자연에서 위험한 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미 담수 공급이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산림이 불타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기후 온난화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6차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종의 급격한 손실이 자연 멸종률보다 1,000배에서 10,000배 더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sup>1</sup>
9. UN 사무총장은 "기후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낸 "수많은 기후 약속의 파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질식시키는 산업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불길에 연료를 더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연쇄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영향을 초래할 임계점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sup>2</sup>
10. 2004년에 작성된 '아크라 신앙고백'은 "선진국들의 무한 성장 정책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 추구가 지구를 약탈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989년에는 매일 한 종씩 사라졌고 2000년에는 매시간 한 종씩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어족 자원의 고갈, 삼림 벌채, 토양 침식, 담수 위협은 파괴적인 결과 중 일부입니다.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생계 수단이 사라지고, 해안 지역과 태평양 섬이 침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폭풍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은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생명체와 문화적 지식이 급전적 이득을 위해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sup>3</sup>

탈통합

11. 국제 협력을 표명해온 많은 글로벌 기관과 국제 협약이 전복, 파기, 저항,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지정학적 행동에서 드러나며,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사건에서 국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의료, 사회 복지 권리, 성 관련 권리, 난민 권리와 같은 분야에서 통합과 연합의 국가적 성과와 이정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의 개념은 공동선을 위해 부유층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민영화 논리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sup>1</sup> <https://www.worldwildlife.org/stories/ipcc-climate-report-6-key-findings-about-the-climate-crisis>.

<sup>2</sup> <https://news.un.org/en/story/2022/04/1115452>.

<sup>3</sup> 아크라 신앙고백, §8, [<https://wrcr.eu/about/accra-confession/>].

## 비인간화

12. 커뮤니티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혈연, 친족, 민족, 가부장제의 규범에 따라 편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부터 북미의 심화되고 고착화된 인종 차별, 남아시아의 카스트 제도 잔혹 행위 등 전 세계에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와 국경이 더욱 깊고 확고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비롯해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배 세력의 설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조직되고 있으며, 그 대가는 소외된 사람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13.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는 누구이며 내 형제는 누구인가?"라고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12:48-5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친족과 가족에 대한 편협한 개념을 전복시키고 대신 정의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을 열어 보이십니다.

## "인내로써 증거하라" 의도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커뮤니티언으로 부름

14. 우리는 커뮤니티언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지되고 양육된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이러한 확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노력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공동체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었지만, 다른 형태의 소통도 번창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공간에서 공동체의 의미,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성찬을 축하하고 가상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5. 제도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민중 운동과 연대 운동은 연대를 구현하고 공동의 증언을 찾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잘못된 명칭이 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항과 희망의 예언자적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인내하며 증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Black lives movement 흑인목숨운동, 그리고 팬데믹 동안 집 안에서 폭력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한 인내심을 가진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많은 원주민들은 커뮤니티언을 인간, 자연, 영혼, 동물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개인주의적 관점과 달리, 원주민 공동체는 자신을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가족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자 그들 모두가 자연과 영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땅의 영혼을 기리고 모든 생명체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을 행합니다. 인간, 자연, 영혼, 동물 사이의 이러한 신성한 관계는 모든 생명체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커뮤니티언에 대한 이해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본주의적 관계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며, 취약한 존재들과 땅에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 도전합니다.

17. 인도의 나가 공동체와 같은 원주민 공동체는 자연, 영혼, 인간, 동물을 형제자매로 간주합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 인종, 카스트가 정의하는 배타적인 인간 대 인간 관계나 좁은 친족 관계를 벗어난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관계는 민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원주민들은 신화와 민담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며, 이들 이야기는 신학적, 도덕적, 윤리적 삶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인도 나가랜드에서의 고찰:

나가족 민담에는 인간, 정령, 호랑이 세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성애적 틀을 넘어서는 가족적 형제 이야기로, 복잡한 관계의 역동성을 드러내면서도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 호랑이, 정령, 그리고 인간

"전설에 따르면, 정령, 호랑이, 인간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늙자 세 형제는 차례로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정령은 어머니를 돌볼 때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라이스비어를 마시게 하여 어머니가 잘 지내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어머니를 돌볼 때는 괜찮았지만 호랑이가 어머니를 돌볼 때는 어머니를 굶고 어머니의 피를 훔쳐 어머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정령과 인간에게 자신이 이날 죽을 테니 호랑이를 그 밭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묻고 무덤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호랑이가 밭에 나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를 묻고 무덤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는 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한 호랑이는 통곡하며 어머니의 무덤 주변을 굽어봤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밀림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인간과 호랑이는 누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은 교활함을 발휘해 결국 호랑이를 이겼고, 그 후 호랑이는 숲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령은 인간의 속임수에 분노해 그를 저주하여 다시는 정령을 볼 수 없도록 저주를 내렸어요. 이후 인간은 형제들이 그리워지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가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8. 이러한 대안적 가족 관계는 모든 생명체의 통합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관계 회복을 향한 움직임, 인간, 자연, 영혼, 동물 간의 커뮤니티를 향한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19. 원주민의 커뮤니티 개념은 공동체적 관계에 뿌리를 둔 삼위일체 하나님의 더 넓은 양상으로 가득합니다. 원주민 공동체가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해방과 증언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인간, 신,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의 성스러운 본성을 보여주는 의식과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예식은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20. 커뮤니티에 대한 원주민의 관점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창조 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연 및 동물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강조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또한 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원주민의 관점은 우리에게 관계를 재평가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상호 연결성, 상호성, 존중의식을 더욱 심도 있게 키우도록 촉구합니다.

## 커뮤니언에 대한 성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주권을 기념하고 구현할 때 커뮤니티를 누립니다.

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의 영광의 몸과 같게 하실 것이며, 이는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빌 3:20-21)
22.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개혁된 제자도와 증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값비싼 충성심에 어떻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모든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근본적인 외침을 반영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개인적인 신앙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과 부활, 길과 진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연결된 증언 속에서 실현됩니다.
23. 아크라 신앙고백은 개혁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연대와 헌신을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창조와 구속의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충만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약속 아래 살고 있습니다(요 10:10)."<sup>4</sup>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창 9:8-12).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구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사 55:1).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정을 위한 은혜의 경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선적인 파트너가 되는 포용적인 언약임을 보여주며, "지극히 작은 자"(마 25:40)를 위한 정의를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축복을 받으며 이 언약에 포함됩니다(호 2:18이후).<sup>5</sup>
24. 식민주의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몰아내고 백인 기독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신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조직적, 개인적 폭력과 분열의 많은 징후가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죄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는 구조, 즉 사적이고 공적이며 신성하고 세속적인 방식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회개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때 커뮤니티를 누립니다.

25.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라,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니 너는 내게 말하리라.

<sup>4</sup> 아크라 신앙고백, §17.

<sup>5</sup> 아크라 신앙고백, §20.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느냐—너는 알지 않느냐!" (욥기 38: 4-5)

26. 이 인용문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환상적인 대화를 포착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만이 창조의 정점이라는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함을 폭로하고 인본주의적 오만을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 중심적 사고와 창조자의 생태학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욥기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여러 번 저항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12장에서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땅으로부터 배우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 "그러나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늘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게 말할 것이요,  
땅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땅이 네게 가르칠 것이요,  
바다의 물고기가 네게 알려줄 것이다.  
이들 중 누가 주님의 손이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욥 12:7-9)
28. 욥기의 저자(들)가 그린 세계는 백인 남성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족장 체제가 아니라 동물, 새, 물고기가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창조의 관점은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나 주권자라고 여기는 시각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창조물은 인류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가부장주의 안에서 인간을 청지기로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위에 두고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적절한 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비인간적 자연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거나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원주민의 관점, 특히 볼리비아에서 떠오르는 관점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29. 인간이 창조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에 살고 있다고 결론짓게 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우리 행성의 환경과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제학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재앙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와 분석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재앙의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계급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삼키고 소비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가부장적 구조에 내재된 이러한 관념이 커뮤니티와 코이노니아의 파괴의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를 끼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30. "내가 악인에게 그들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sup>14</sup>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sup>15</sup>악인이 담보를 회복하고 강탈한 것을 돌려주며, 생명의 법을 따라 걸으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sup>16</sup>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겔 33:13-16)

31.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이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변화하는 근거입니다(엡 2:8-9).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며(딤후 2:11-12), 사랑으로 형성되고 특징지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롬 12:1이후, 고후 5:17, 엡 4:1-6). 고린도전서 11장의 주의 만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에스겔 33:10-20과 함께 읽으면 불의 중에 모인 신앙 공동체의 커뮤니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에스겔의 은혜 신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들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보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이웃과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와의 영원한 커뮤니티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32. 이것의 함의는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 불평등과 불의를 명명하고,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분명해집니다. 기후 비상사태,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유산, 여성혐오, 동성애 혐오, 계급주의, 성폭력과 같은 현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구와 모든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회복이 무엇을 요구하고 드러내는지를 이해하면 "네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그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보호하며, 불평등을 해체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삶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가운데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33. "가난한 자의 빵은 빈 자의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이다. 이웃의 생계를 빼앗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근로자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다."(전도서 34:25-27)
34. 이 본문은 프라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의 개종에 기인합니다. 그는 16세기 스페인 도미니카의 사제로 히스파니올라에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페인 왕국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학살하는 폭력적인 엔코미엔다 제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첫 설교와 미사를 준비하면서 전도서 본문을 읽었고, 이 제도의 죄성을 폭로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노예를 포기하고 1515년 고국인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 왕실에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신대륙 원주민에게 가하는 학대를 중단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물론 라스 카사스는 비인간적이고 악한 체제에 맞서 원주민들의 반란과 저항을 이끌었던 '인디언의 수호자'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적 발언은 커뮤니티를 다시 연대의 기반에 두게 하였습니다. 라스 카사스의 이야기는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와 연대의식이 제국이 지배하고 자본화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포용하고 성장시키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 라스 카사스는 노예가 된 원주민을 수송된 아프리카인들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거나 세우신 민족과 장소에 축복이 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커뮤니티언을 누립니다.

35.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죽은 자와 나에게 친절히 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친히 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각자가 남편의 집에서 안전을 찾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 민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내 딸들아,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룻기 1:7-11)

36. 나오미와 그녀의 모압 며느리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언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 현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주민과 정착민으로서 이주민과 정착민이 어떻게 서로, 그리고 원주민과 커뮤니티언을 이룰 수 있는지 질문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오미는 유다의 기근으로 인해 많은 이들처럼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향인 모압에 기근과 불행이 찾아왔고, 기근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엔 며느리들도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가족과 함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중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와 함께 유다에 머무를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신뢰하고 언약의 힘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며,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룻기 1:16)

37. 나오미는 식민지 정착민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고, 나오미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의 이주민으로서의 현실은 자신과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협으로 드러납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원주민 뿌리를 끊지 않으려 하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녀가 조상 땅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불평등한 그물망 속에 이스라엘의 다윗과 만유의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아기가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 다윗과 그리스도는, 시온주의적 식민 정착민의 비전과 실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제적 커뮤니티언을 실행, 즉 오르바와 그녀의 민족을 전멸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룻이 그 때와 지금, 세상을 변혁시키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38. 이 이야기는 인종과 종교를 넘어선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상호 환대의 정신으로 이야기 속 서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 그들의 이주 및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9. 이주와 이주민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공동체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식민주의, 경제 세계화,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시대에 이주는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공동체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는 극우,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민법과 망명 신청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었던 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과 외국인을 바이러스와 거의 동일시한 것이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부르심을 실천할 때 커뮤니티언을 이룹니다.

40. "그러므로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 (마 20:16)

41.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개념은 단순히 섬김에 뿌리를 둔 제자도의 사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 대량학살, 생태계학살(ecocide), 가부장제에 의해 커뮤니티언이 분열되고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인정, 후회, 회개, 보상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혁명입니다. 지배적인 문화는 과거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일어난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 교회가 일치와 에큐메니즘, 커뮤니티언을 이용해 비대칭과 불평등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이를 정당화해온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유산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42. 더 나아가, 파괴적이고 배제적인 사회 구조에 의해 지속되는 명백하고 은밀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커뮤니티언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43.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화해의 관점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이 화해의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커뮤니티언을 구축하려면 기독교 식민지적 우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해체해야 하며, 그것이 생태파괴와 집단학살에 끼친 영향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처받은 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치의 영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증언을 지속할 때 커뮤니티언을 누립니다.

44. "그들은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 그를 맞이하려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9:52-56)

45. 누가복음 9장은 사명, 움직임, 행동으로 가득찬 장입니다. 열두 제자의 파송(1-6)으로 시작하여 5,000명을 먹이는 장면(10-17)으로 이어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18-20)으로 전환되며,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장면(21-27), 예수님의 변모(28-36)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37-43)와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배신과 죽음(43-46)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변모의 강력함은 더욱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 다투기 시작합니다(46-48).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환대를 구합니다(51-56).

46.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언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환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거부에 대해 취한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고 시온에 자신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예수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변모를 목격한 이후,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 번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며 사마리아 마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것을 재와 잔해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47. 예수님은 56절에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 버전의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48. 개혁신학은 어떻게 영에 속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제외하고 누가 이것을 분별하거나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영에 속하는 무수한 방법을 찾는 제자로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끔찍하게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체 마을, 공동체 또는 민족 전체를 파괴하도록 열렬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종파적 사고방식과 폭력이 구원과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독교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제도에서 어떤 영이 쫓겨나고 자리잡아야 할까요?
49. 성령에 속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헌신입니다. 성령에 속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열매'에 대해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신실, 온유, 절제 등을 그 열매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끈질긴 증언의 윤리와 축복이 존재하는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1-30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 속에 다가올 세상을 성령의 움직임과 생명 통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하며, 세대마다 선과 악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죄와 축복을 지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대 간, 생태학적, 종말론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우데노사우니 연합의 위대한 법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증언을 인내로써 지속하는 것입니다.

## 토론 질문

커뮤니언에 관한 기획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 질문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서문

- WCRC는 "커뮤니언에 부름받고, 정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슬로건을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정의 사이의 관계를 성찰해보세요.
- WCRC는 "완전하고 정의로운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 통합 및 동화에 대한 요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 "우리는 분열, 우월주의, 그리고 갈등이 점점 더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초래하는 폭력, 불평등, 불공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반-커뮤니언의 다양한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 분리와 분열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불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그러나 지속적이고 저항적인 공동체, 재연합, 대항하는 연대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예를 제시하고 자신의 저항 경험을 공유하세요.
- "WCRC는 우리의 증언이 예언자적, 성서적, 관계적 역사에 기초하고 용기 있는 증언의 역사와 최악된 분열로 훼손된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서,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진실성을 기념하고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용기 있는 증언을 한 사례와 교회가 불의에 연루된 사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우리는 하나의 글로벌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커뮤니티를 드러내고 전복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에 나아갑니다. 고린도교회와 마찬가지로, 배고픈 이들이 있는 반면, 세상의 자원으로 배가 부른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전 II:21)."  
주님의 만찬에서 왜곡된 커뮤니티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 "우리 이웃의 땅은 여전히 탐욕과 강력한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세계 다른 지역의 토지 분쟁에 대해 토론하세요. 사람들의 필요와 자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례를 공유하세요.
- "국제 협력을 표명해온 많은 글로벌 기관과 국제 협약이 전복, 파괴, 저항,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복지 권리, 성별 권리, 난민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사례를 제시하고 토론하세요.
-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혈연, 친족, 민족, 가부장제의 규범에 따라 편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 12:48-50)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예를 제시하고 기독교적 공동체 이해의 결과에 대해 토론하세요.

## "인내로써 증거하라" 의도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커뮤니언에 대한 부름

- "우리는 커뮤니언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지되고 양육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개혁주의의 이해에서 커뮤니언은 선물이자 의무입니다. 커뮤니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해가 분리와 분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상황을 나눕니다.
-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공동체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커뮤니언을 유지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 "많은 원주민들은 커뮤니언을 인간, 자연, 영혼, 동물을 포함한 전체론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약탈, 탈통합, 비인간화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커뮤니언에 대한 원주민의 이해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토론하세요.
- "전설에 따르면, 정령, 호랑이, 인간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가랜드의 이야기에서 탐구하고 있는 커뮤니언의 형태에 대해 토론하세요.

## 커뮤니언에 대한 성찰

- "이 언약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은총의 선물입니다(사 55:1).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정을 위한 은혜의 경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선적인 파트너가 되는 포용적인 언약임을 보여주며, "지극히 작은 자"(마 25:40)를 위한 정의를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약에 대한 아크라 신앙고백의 이해를 논의하고 이것이 기독교인과 교회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 보세요.
- "욥기의 저자가 그린 세계는 백인 남성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족장 체제가 아니라 동물, 새, 물고기가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욥기 저자의 세계관에 대해 토론하고 지구가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의 잠재력을 탐구해 보세요.
- "에스겔의 은혜 신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들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보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이웃과의 커뮤니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와의 영원한 커뮤니언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개혁신학에 가져다주는 특정한 관점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스페인 도미니카의 신부 프라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는 선교사로 파견된 스페인 히스파닐라에서 첫 설교와 미사를 준비하면서 전도서 34:25-27 본문을 읽었고 이 제도의 죄성을 폭로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노예를 포기하고 1515년 고국인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 왕실에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신대륙 원주민에게 가하는 학대를 중단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데 라스 카사스에게서 배운 교훈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세요.

- "나오미와 그녀의 모압 며느리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 현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주민과 정착민으로서 이주민과 정착민이 어떻게 서로, 그리고 원주민과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지 질문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날 이주민과 정착민 간의 커뮤니티를 위한 교훈을 탐구해보세요.

-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개념은 단순히 섬김에 뿌리를 둔 제자도의 사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이용해 불평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한 사례를 논의하고 인정, 후회, 회개, 보상의 단계에 대해 토론하세요.

## P2: 정의를 위한 계약

우리는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정의와 관련된 네트워크로부터 정의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WCRC의 정의와 관련된 사역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이 개념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cr.eu](mailto:gc2025@wcr.eu).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렴한 의견에 따라 기획문서를 수정한 뒤, 총회의 심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문

1. WCRC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과 증언, 그리고 회원 교회들의 삶과 증언의 중심이 되는 정의 문제에 대해 급진적 통찰과 예언자적 실천을 제공해 온 역사와 다짐이 있습니다. 2025년 총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의 깨어짐을 인식하고 인내로써 우리의 증언을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바로 이 순간에 고백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인식합니다.
2. 그러나 특정한 순간을 살펴보는 대신, 우리는 현재 상황이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난 사건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50년 동안 정점에 이르렀고 결국 우리를 현 역사의 시점으로 이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자리 잡은 역사적 메커니즘은 식민주의, 산업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심화되고 발전되었으며, 이는 배제된 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새로운 요소가 있으며, 이 '새로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언어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은 단순히 예배의 관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대안적 서사를 탐색하는 삶의 방향으로 의도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배적인 기존 서사를 해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서사는 그 체계모니로 인해 오직 유일한 시각이자 존재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 이런 의미에서 제자 공동체의 지속적인 과제는 매 시대마다 새로운 징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일에는 권력을 밝히는 일이 포함되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밝히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분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생사에 관한 문제가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분별은 중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부로부터 의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시대의 징후를 분석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배웁니다. 분별은 역사에서 소외된 이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목회적 관점에서 수행됩니다.
5. 이것은 모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 분별

6. 현재 세계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격변을 일으킨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종 종말론적인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고, 코로나19가 드러낸 심각한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경의 즉각적 폐쇄, 백신 불평등,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이 여성, 인종화된 지역사회, 원주민에게 미친 영향은 우리 세계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7.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후 재앙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전례가 없습니다. 지구 기온의 상승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기후 사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의 손실과 유전자 및 서식지 다양성의 감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 받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시급하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8. 기후 및 생태 재앙의 근본 원인은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을 무한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수도꼭지이자 무한한 자원을 버릴 수 있는 하수구로 여기는 성장 모델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 식민주의의 근본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본세(Capitalocene)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생명과 생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부의 추구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영속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소비 수준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기후중립이 아닌,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9. 우리는 극심한 불평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충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가장 부유한 1%가 나머지 인구가 가진 부와 동일한 양의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10명 중 1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루에 5조 3,000억 달러가 외환 거래로만 거래되는 반면, 인구의 46%는 하루에 7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명 중 1명(약 8.5%)이 극빈층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2030년까지 빈곤 퇴치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압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북반구 정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자본 정책은 노동조합,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특히 물 확보, 식량 안보와 주권, 공중보건 및 교육 분야의 사회적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집단은 여성들입니다.
10.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연대를 무너뜨리며 우리 각자를 경쟁에 내몰았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인간은 지지와 연대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 건강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진 이기적인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 상품화되어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으로 바뀌

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소외되는 존재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미덕보다 획득을 우선시하는 만큼 반인간적이고 반신앙적인 행위이며 우상숭배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반면, 물자와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인간은 국경에서 제한을 받고, 이주는 단속되며, 이주민은 문제로 간주되는 반면 이주의 근본 원인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11. 셋째,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여성에 대한 반발과 여성 혐오가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혐오 발언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봉쇄 조치는 가정이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급 고용 공간에서 여성이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남성이 가족의 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신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내에서 돌봄과 양육 노동의 부담은 종종 무급으로 이루어지며, 심지어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또한, 여성 착취와 지구 착취 사이에는 깊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으며, 여성은 기후 재앙의 첫 번째 결과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듯이, 여성은 유기적 생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 유사하게도, 우리는 아프리카계와 유색인종에 대한 반발을 목격합니다.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면서 이 문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화된 커뮤니티를 둘러싼 경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국가 간 국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중해를 건너려는 수천 명의 이주민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과 기후 변화의 침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로 인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고통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14. 생태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인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종, 종교, 민족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층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의 우월성과 같은 사회적 구조를 이용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이용해 다른 빈곤층에 대항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증가와 우익 우월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종적 및 카스트(계급적) 자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세력과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15. 흑인에 대한 폭력, 차별, 배제의 공격은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화 하고 대서양 횡단 노예 제도를 유지해온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노예제 복합성이 가부장적 교화시설같은 군산복합체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을 희생시키면서 강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권의 논리는 노동 계급을 분열시키고 인종과 민족적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16. 우리는 또한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주민은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땅과 물, 지식과 문화는 채굴

산업과 이윤을 위해 계속 식민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숙학교의 참혹함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7.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혁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노동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각 경제(임시직 선호 경제-gig economy)의 함의는 노동자를 '파트너'로 전환시켜 그들을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동시에 직원의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함의는 분명하지만, 지구에서 인류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오한 함의를 가집니다. 심리적 및 창의성 측면의 영향은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이 전쟁과 전쟁 무기에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생산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관계 내의 지배적인 세력의 이익에 봉사할 것입니다.
19. 또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추진력과 AI의 약속이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및 경제적 이중 위기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AI는 시장의 세력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장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없는 현 시스템의 위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기가 시장의 보편성과 편재성, 즉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수용하고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독창성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20.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투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 문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승격했습니다.
21. 지난 총회 이후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에서의 전쟁, 아르메니아의 잔혹 행위, 미얀마의 군사화 등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의 잊혀진 지역'에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대량학살에 대한 뉴스가 우리의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발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이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colonialis)의 역사적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생명의 완전한 파괴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3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어린이입니다. 병원, 학교, 대학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22. 팔레스타인의 재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 세계의 불의를 구체화합니다; 이는 우리 세계에서 잘못된 것의 축소판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곳이 중동뿐만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 면에서 세계의 문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쟁과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과 신학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식민지 우월성의 개념에 뿌리를 둔 선거 신학에 의해 지탱되는 식민지 체제와 동일합니다. 성경과 신학의 무기화는 식량, 물, 원조의 무기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23.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재 정권의 부상을 인식하는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민주 운동을 통해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해 지탱되는 체제에 도전하면서 독재 정권

의 퇴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힘 한가운데서 민중의 힘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단극적 세계가 아닌 다극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24. 이러한 여러 불의의 위기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그 결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시스템을 조장합니다.
25. 과거에 WCRC는 경제, 정치, 군사력의 결합을 '제국'이라고 명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용어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용어는 북반구 교회와 남반구 교회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는 분열적인 용어로 여겨졌습니다. 이 용어가 교계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의 경제 붕괴로 미국 주택 시장이 붕괴되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초강대국 부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제국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자결권, 인간성, 존엄성을 위한 투쟁을 억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 제국은 민족국가의 힘으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극적 기업과 초부유층이 국경의 제약 받지 않고 특정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며 오직 자본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과 수익을 조세 피난처로 옮길 수 있는 탈세 메커니즘이 이를 충분히 증명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국이 우주와 동떨어져 있으며, 다수의 희생으로 일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 중심의 패권주의는 자원의 추출과 배분을 계속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가의 경계에 따라 특권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7. 제국은 경제, 정치, 군사적 권력의 결합을 일컫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분별하는 렌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태 위기, 경제 위기, 가부장제, 인종 차별, 권위주의, 군사화 등 우리가 명명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전체의 일부로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먹여 살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다수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의 수혜자입니다.
28.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WCRC는 모든 회원 교회, 지역,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과 함께 분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는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 세계적인 분리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국경의 강화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국제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9.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국주의라고 부르든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든 말의 울가미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 정치, 군사, 종교, 문화적 힘이 결합하여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불이익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 고백

30.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향하는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인 형벌이 아닌 로마 제국의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로마 제국과 그 협력자들 이외의 것에 믿음

을 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문화적 상상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평등한 공동체의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축적에 대항하는 나눔의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축적에 반대되는 충분함이 있는 정의의 공간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화 위협에 반대되는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31. 그러므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이 현세적 결과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라는 개념이 왕권 신학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신학을 전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주되심은 위계와 권력의 체계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권력의 축적보다는 이를 비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2.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거나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경제와 정치는 신앙과 신자들의 관심사입니다.
33. 성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소망대로 변혁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는 신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과 그 대답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정의는 신성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며 하나님의 소통 가능한 속성입니다.
34.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의는 죄이자 이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의는 반신앙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충만한 삶을 부정하는 경제, 정치, 종교, 문화 활동의 영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정치적 삶은 신앙의 문제이며 신앙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선입니다. 정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35. 신의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경제,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한 주권자이며 경제, 사회, 정치 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 간의 신성한 관계가 상호성과 정의로운 관계로 상징되는 만큼, 인간과 인간,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간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36. 중요한 것은 키리오스(kyrios)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야훼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노예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라고 지시하는 신적 존재가 계시한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내가 있다" 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억압을 타도하는 일에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해방의 과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시 24:1). 지구와 지구가 지탱하는 상호 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37.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육신 신학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권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에게서 영감

을 얻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모든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부릅니다.

38. 이는 고백적 단체가 아니라 고백하는 단체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단체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운동을 요구합니다. WCRC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렵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벨하 신앙고백과 아크라 신앙고백에 대한 우리의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기후 재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 증언

39. 현재의 세계를 분별하고 불의에 반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노력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다음 언약을 통해 이 땅에서 경제와 정의를 증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 지구와의 언약

40. 첫째, 우리는 지구 및 모든 인간이 아닌 자연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경제 및 신학적 비전은 너무 오랫동안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사이의 위계질서에 기초해 왔습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은 이러한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 해체하지는 못했습니다.
41.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가치가 상호성의 맥락에서 인정되는 생태학적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는 '생명의 그물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즘, 경제학, 생태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합니다. 지구와의 언약적 관계는 우리가 기후 위기 완화를 고백의 문제이자 극도로 시급한 문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가난한 자, 쫓겨난 자들과 맺는 언약

42. 우리는 지구와의 언약이 인간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인종, 성별, 민족, 국적에 따라 분열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정의로운 경제는 이러한 분열의 축을 따라 정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부장제와 군산복합체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민의 특별한 위치를 인식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생명의 상품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소비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인류와 피조물 사이에 의도하신 언약적 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합니다.
- a)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그 자체의 정의에 따라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자리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에서 배제된 '최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을 서약하며,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b) 우리는 올해(2025년)가 주빌리 캠페인(외채 탕감 운동 Jubilee Campaign)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부채 탕감을 위해 이루어진 엄청난 지지와 그 부채의 불법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채의 용서, 토지 반환, 보상을 의미하는 회년을 위해 일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특히 기후 보상과 대서양 횡단 노예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가부장제 해체를 위한 언약

- 43. 셋째, 우리는 모든 성별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위해 언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가 여성의 노동, 출산력,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이며 여성과 소녀들이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과 생태적 재앙의 부담을 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별 이분법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규범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성과 성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불경한 것으로 명명합니다. 우리는 강단, 교회 위원회, 신학위원회에서 정의롭고 상호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여성 혐오 및 동성애 혐오 발언을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의 맥락에서 여성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식합니다.

####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평화를 위한 언약

- 44. 넷째,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군사화와 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의 상황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특히 정착민 식민주의로 인해 땅을 잃고 대량 학살의 위협으로 생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 이 심각한 불의를 지지하는 데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지지하는 신학은 생명의 신을 부정하고 대신 죽음을 추구하는 거짓 신을 전파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모든 신학을 규탄합니다.

#### 민주주의와 인종 및 카스트 해체를 위한 언약

- 45. 마지막으로,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권위주의가 소외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특권층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유색인종, 소수자, 달리트, 여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배 세력과 우익의 이익 공고화에 저항하고 대신 인종주의, 카스트주의,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와 사람들의 주권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46.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은 우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에큐메니컬 단체, 사회운동,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 사역에서 WCRC 사무국과 WCRC 회원 교회들이 여성, 노동자, 원주민, 성 소수자, 빈민과 무주택자, 팔레스타인인들과 깊은 연대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 토론 질문

정의 기획문서에 관하여 토론해 주세요. 다음 질문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서문

- "WCRC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과 증언, 그리고 회원 교회들의 삶과 증언의 중심이 되는 정의 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분별력과 예언자적 행동을 제공해 온 역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과 아크라 신앙고백서 5-17절을 읽고 여러분의 교회가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 "우리는 현재 상황이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난 사건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50년 동안 정점에 이르렀고 결국 우리를 현 역사의 시점으로 이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식민주의, 산업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우리 세계의 분열을 낳고 악화시켰는지 살펴보세요.

-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새로운 요소가 있으며, 이 '새로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별력과 새로운 언어를 요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발전이 시대의 징후를 읽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보세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은 무엇일까요?

- "따라서 분별은 중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 주변부로부터 의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시대의 징후를 분석합니다. 분별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의 관점에 따른 분별이 중립적일 수 없는지와 주변부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분별

- "전 세계적인 격변을 일으킨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종 종말론적인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고, 코로나19가 드러낸 심각한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였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실제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 받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시급하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후 재앙의 시급성에 대해 토론하고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어떻게 종말로 이해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세요.

- "전문가들은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본세(Capitalocene)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생명과 생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류세와 자본세의 개념을 살펴보고 시대의 징후를 읽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보세요.

-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 이 시스템에서 인간은 지지와 연대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의 영적 차원에 대해 토론하고 상품화, 원자화, 경쟁이 사람들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숙고해 보세요.

-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여성에 대한 반발과 여성 혐오가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혐오 발언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 "유사하게도, 우리는 아프리카계와 유색인종에 대한 반발을 목격합니다. 경찰의 인종 차별과 폭력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면서 이 문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화된 공동체를 둘러싼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폭력 및 기타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쟁과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과 신학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과 신학이 전쟁과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로 사용된 상황을 공유하세요.

## 고백

-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평등한 공동체의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토론하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반문화적 상상력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합니다.
- "불의는 죄이자 이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의는 반신앙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충만한 삶을 부정하는 경제, 정치, 종교, 문화 활동의 영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역입니다. [...] 정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정의는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 "중요한 것은 키리오스(kyrios)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야훼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 그 의미는 아마도 "내가 있다" 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억압을 타도하는 일에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해방의 과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 "이는 고백적 단체가 아니라 고백하는 단체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단체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운동을 요구합니다."

고백적 단체와 고백하는 단체의 차이점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고백하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 증언

- "현재의 세계를 분별하고 불의에 반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노력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다음 언약을 통해 이 땅에서 경제와 정의를 증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정의를 증언하는 언약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 "우리는 지구 및 모든 인간이 아닌 자연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 및 신학적 비전은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사이의 위계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언약적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는 지구와의 언약이 인간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가난하고 쫓겨난 사람들과의 언약적 관계가 인종, 성별, 민족, 국적에 따른 분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여성과 성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불경한 것으로 명명합니다. 우리는 강단, 교회 위원회, 신학위원회에서 정의롭고 상호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여성 혐오 및 동성애 혐오 발언을 최악으로 규정합니다."

가부장제 해체를 위한 언약이 어떻게 모든 성별 간의 정의로운 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은 우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에큐메니컬 단체, 사회운동,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기독교 단체와 사회 운동 간의 정의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P3:

## '인내로써의 증거'

###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신학

우리는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신학 네트워크로부터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WCRC의 신학 사역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이 개념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crceu](mailto:gc2025@wcrceu).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렴한 의견에 따라 기획문서를 수정한 뒤, 총회의 심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문

1.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소서"라는 주제 아래, 총회는 종교개혁을 "신학적 역량 강화 운동"으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총회는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며, WCRC가 종교개혁의 '미완의 사업'인 신학적 작업을 감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학은 갱신과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낙관적인 기고문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3. 그러나 상황의 변화는 분별과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과정은 금융 및 기술 미디어의 권력자들에 의해 포섭되고 정당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과 문화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신학 자체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과 정의를 위한 교회의 선포와 증언은 도덕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4. 2025년 총회의 주제인 "인내로써 증거하라"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인내는 고난의 상황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종종 소홀히 여겨지는 영적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인내는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는 돌봄의 주체로 변화시킵니다. 인내는 트라우마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인내로써의 증언은 주변부에서 선교를 실천합니다. 그것은 권력과 영향력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 인내의 신학을 향하여

5. 인내는 개혁주의 전통의 중심 주제입니다. 교회 역사가 하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은 개혁 운동의 첫 수십 년을 "난민들의 개혁"이라고 묘사했습니다.<sup>1</sup>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존 칼빈과 다

---

<sup>1</sup> H. A. 오버만, 존 칼빈과 난민 종교개혁, 리브레이리 드로즈, 제네바, 2009, 186.

른 개혁자들은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신자들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인내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시는 상처 입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sup>2</sup>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시고 그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도 상처를 입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과 같습니다."<sup>3</sup>
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기 위해 인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의 불변적인 결정에 의존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의 효력, 성령의 지속성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에 의존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며, 분쟁과 불의, 폭력,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이며, 하나님께서 개인적, 공동체적, 지구적,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완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은 선택과 창조에서 선포되고, 생명을 잉태하고 성육신을 낳음으로써 드러나고 경험되며, 성령의 내주 안에서 확장되고 계속됩니다. 최초의 은사와 그보다 더 큰 성취에 대한 약속은 우리 자신의 교회적, 정치적, 물질적, 영적 성취를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하려는 유혹에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다시 던져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헌신은 예배와 일, 경청과 분별, 행동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우리에게도 인내와 용기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주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희망을 키우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 반영으로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절망과 실망으로부터 지켜주며, 생명의 충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의 표징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영감을 주고, 가능하게 하고, 강권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서둘러 주십시오!" "오소서, 주 예수님!" 그리고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 시여!"
10.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증거 안에서 보호받을 때, 우리의 인내가 증거의 인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드러내도록 영감을 주고, 가능하게 하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실망 속에서도 창조하고 지탱하는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선택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중보기도, 자비와 정의의 실천, 회개와 갱신, 지속적인 종교개혁을 함께 촉구

<sup>2</sup> 참조, 니콜라스 볼터스토프, "하나님의 상처": 칼빈의 사회 불의의 신학", in: 부르심 듣기. 전례, 정의, 교회, 그리고 세상 (그랜드 래피즈: 에드만스, 2011), 114-132.

<sup>3</sup> 존 칼빈, 하박국 주석 2:5-6.

하는 것을 통해 기도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왕적, 예언자적 직무를 반영하도록 영감을 주고, 가능하게 하며, 강권합니다.

11.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이자 심판이며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줍니다. 인내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헌신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위한 확신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12. 개혁주의 전통에서 인내가 잘못 해석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꽤나 자주, 사람들은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학대를 인내하도록 요구받았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과 폭력을 당했으며,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도록 조종당했고, 노동자들은 경제적 착취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의 주제는 인내를 정의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인내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피조물의 신음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알려지고 영감을 주어 끈질기게 증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인내로써 증거를 위한 신학 '하기'(DOING THEOLOGY)

13. 이 기획문서는 개혁주의 전통과 연계하여 인내로써의 증거를 위한 신학적 자원을 수집합니다. 이는 WCRC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네 가지 동사를 따릅니다: 분별, 고백, 증언, 함께 개혁함.

### 분별

#### "마지막 때의 종말론"과 "인내"

14.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중첩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희망이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희망의 신학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환멸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많은 사회 전반에서 소위 '종말'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의 관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의 대안이 아닌 폭력의 악화를 통해 급진적인 변화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반발 조차도 어느 순간 절망과 실망, 체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적,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도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5. 대안적으로, "인내로써 증거하라"로의 부름은 종말론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이며, 이는 단련된 희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을 상기시키고 압도적인 환란에 직면할 때 용기를 줍니다. 이는 순진한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절망과 체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온 지구의 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의 일을 동일시하는 기독교적 승리주의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이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게 됩니다.

## 분별의 신학 개발

16. 우리의 전통은 회원 교회들에게 분별의 마음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세례의 개인적 책임이자 공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순간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한 인내의 체계적인 구체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7. 영국 연합개혁교회 노스웨스턴 노회는 분별의 영적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지 탐구하는 방법은 분별의 과정, 즉 우리의 의사 결정을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sup>4</sup>
18.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관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신앙과 일치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의 근본적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현재의 세계 상황과 모든 시대의 상황을 주의 깊게 명명하고 비평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이 작업에서, 우리의 인내로써의 증거는 또한 하나님에 의한 지속적인 형성과 개혁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19. 상황을 비평하는 도구는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기반한 존중의 관계 안에서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분별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개혁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12)
20. WCRC는 이 소명을 받아들여 정의에 대한 헌신과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따라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부르심을 함께 분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랑, 정의, 죄, 회개

21. 30년 이상 우리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대화에서 WCRC가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신앙의 윤리적 축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이 계속 상기시켜 왔듯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정의와 모든 죄악에 빠진 인간의 의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2. 신약성경에서 정의와 의로움은 같은 그리스어인 "디카이오스네(dikaioisune)"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1:17, 아모스 5:24 또는 누가복음 18:1-8과 같은 성경 본문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정의와 의로움의 개념은 모두 올바른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피조물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권력과 남용으로 대체될 때 정의와 의로움은 깨집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학대를 죄라고 불렀습니다.
23.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우분투의 기본 철학은 사랑과 정의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필리핀계 미국인의 카푸아(kapwa) 신학은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세계, 지구(땅, 바다/강, 공기) 사이의 불가분의 연결 고리를 강조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 큰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동료 인간, 자연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성

<sup>4</sup> 영국 연합개혁교회 노스웨스턴 노회, [<https://nwsynod.org.uk/discerning-together-2/>].

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관계도 바로 세우십니다.

24.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형태가 공동체에서 시작하고 공동체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 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세 위격의 한 하나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왕국'의 '왕'으로 나타난 것처럼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안에서 끝나지 않는 기독교 신학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이질적이며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 상황에 따른 신학 '하기'

25. 신학의 주된 관심사는 "말씀에 비추어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구스타보 구티에레즈, Gustavo Gutierrez)입니다. 신학'하기'(Doing Theology)는 소외되고, 희생당하고, "유산을 잃은"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하워드 서먼, Howard Thurman),
26. 상황에 따른 신학 '하기'는 정의를 위한 공동체의 투쟁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내에서 비롯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동반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에서 신학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위한 적극적인 기도와 기도하는 행동,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학대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와 구원을 위한 외침,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적대 행위의 중단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다림, 난민들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 굶주린 이들의 고난 - 우리 공동 인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실제 삶은 살아있는 신학이며 모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이기에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상황에 따른 신학 '하기'는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상황에 따른 신학 하기에는 여정에서의 동행, 공동체 조직과 예언자적 항의, 공공 옹호, 구호 활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는 공동 예배, 대화와 고백의 모임, 이러한 활동과 모든 인간 활동 속에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찰 등이 포함됩니다.

#### 토착 철학 및 영성에의 참여

28. 토착성은 인내와 장소를 연결합니다. 토착 철학과 영성은 구체성과 창조와의 연결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종종 토착 정체성은 창조 세계 내에서의 책임과 연결됩니다. 영적 신성함은 아브라함을 연상시키는 땅, 물, 별과의 고도로 상황화된 친족 관계로 묘사됩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와 기계화된 경작 관행은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자연 환경과의 친족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9. 발견의 교리가 거부됨에 따라 선교 역사와 토착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많은 토착민에게 기후 재앙의 고통은 그들의 몸과 땅에서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와 구원의 희망은 협력과 학습을 위한 공유 지점이며, 종교 간 신학적 발견의 새로운 흐름을 나타냅니다.

## 고백

### 이전의 고백과 그로부터 배운 점

30. WCRC 제27차 총회의 주제는 "인내로써 증거하라"로 개혁주의 신앙고백 전통의 핵심적인 확언을 신학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바르멘 선언의 정점을 이루는 예언자적-사도적 선언을 확립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하다"(사 40:8, 벰전 1:25).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되지 않고 해방적인 영속성을 표현하며, 이는 온 창조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약속된 왕국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지탱합니다.
31. 바르멘, 벨하르, 아크라의 신앙고백은 WCRC가 다양한 우상 숭배 세력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의의 권력에 맞서고 정의와 평화, 온 피조물의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해방적 코이노니아로의 회심을 촉구합니다.
32. 여러 총회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로 응답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이러한 고백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WCRC는 스스로를 고백하는 교회로 여기며 그리스도가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요구를 고백합니다.

###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시도하기

3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WCRC는 애도, 희망, 증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분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2주마다 모임을 가졌고, 그때마다 다른 지역이나 네트워크가 팬데믹에 대한 전례, 신학적 성찰,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시대에 분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개혁되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34. 팬데믹은 '돌봄의 위기'(Oxfam)와 '도덕적, 정치적 위기'(WHO)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된 구조적, 제도적, 시스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끊임없고 포괄적인 전쟁'(Allan Boesak)이 더 광범위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은 이미 30년 전에 '하나님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앨런 보에삭(Allan Boesak)은 팬데믹이 이처럼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상황을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Global Apartheid)'라는 용어로 명명했습니다.<sup>5</sup>
35. 이러한 갈등에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WCRC는 고백의 전통을 다시 강조하고 고백의 언어로 근본적인 갈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 증언: 글로벌 위기에 대한 신학적 대응

36. WCRC에게 신학은 핵심적인 증언의 형태입니다. 신학은 억압 체제의 종교적 토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인간과 세계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커뮤니티의 신학적 작업에서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

<sup>5</sup> WCRC 워킹 페이퍼 (2021):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분별, 고백, 증언,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1/01/2021-01-21\\_COVIDandBeyond-WorkingPaper-EN.pdf](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1/01/2021-01-21_COVIDandBeyond-WorkingPaper-EN.pdf)].

## 근본주의

37. 종교적 텍스트의 해석을 폭력적으로 폐쇄하고 그들의 주장과 신념을 무오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확립하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의 지정학에서 가시적인 특징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 및 이념적 전통은 신념 체계의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려는 욕구의 강한 직관적 요인으로 인해, 그리고 종종 자신과 다르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배제적인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근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38. 오늘날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의 교도권에 대한 잘못된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에 전가된 배타성은 성경의 신성화로 이어집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는 성령에 대한 개방성을 잃고 문자적 언어로 암호화됩니다(고린도후서 3:6).
39. 굳어진 근본주의에 맞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오직 성경'의 원칙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성경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집니다. 성경의 의미를 분별하는 공동의 과정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언을 통해 개혁되고 다시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백합니다(*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
40. 근본주의는 종교 공동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 근본주의는 이제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에게 이 주장에 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 민족주의 & 권위주의 & 우익 자유주의

41. 더 넓은 글로벌 맥락에서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소수자 우월주의와 위치, 인종, 계급, 카스트, 성별, 성적 지향의 교차성에 기반한 기타 관련 '우월주의'가 만연하고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특정 국가 및 외교 정책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선출된 독재정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42. 민족주의는 종종 '우리 대 저들(us v them)'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며, 여기에는 기독교를 정체성 표식으로 격상시키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기독교는 일부만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민족주의적 수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적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국경 통제를 폐쇄하거나 좁히고 과잉 편견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도시 공간에 퍼져 있는 유독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지역 민주주의의 형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외부자라는 어휘는 외부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담론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권력이 복지를 위협하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43. 민족주의적 주장에 만연한 우월주의적 경향은 아크라 신앙고백에 명시된 대로 끊임없이 해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해체 작업은 우익 자유주의와 같은 새로운 패권 세력이 종교적 언어와 정체성을 사용할 때 매우 긴급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늘의 힘'의 특별한 지지를 주장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요구하는 왜곡된 자유 개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형태에 대한 저항'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 전개에서 '악마적인 것'의 현상적 구성을 특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6</sup>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44. 기술 혁신의 영향은 매우 양면적입니다. 최근의 위기로 인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영향과 흐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팬데믹 대응으로 국제 여행의 위험과 한계, 속도가 부각되면서 선택적 이주와 강제 이주에 대한 이전의 에큐메니컬의 관심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협력, 협업, 경쟁, 갈등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진전(및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반면, 연결성 부족으로 고립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립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접근성의 부족에 의해 결정됩니다.
45. 오늘날 드론은 칼과 쟁기를 동시에 운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호송대에 실어 운반하기도 합니다. 무기나 농기구를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직접 작업에 참여합니다. 남은 것은 눈물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화된 환경에서는 반응이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챗봇은 에세이와 기도문을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자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증상을 검색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로봇은 집과 직장을 청소할 때 "구석진 곳을 놓친다"고 합니다. 사진은 "나를 더 예뻐 보이게 해줘"라는 지시에 따라 조작됩니다. 우리는 Siri에게 집에 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46.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적 질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축각적(물리적) 구체화 경험 없이 원격으로 기술을 사용할 때 도덕적,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혜택과 위험은 무엇인가? 신앙에 기반한 선택과 분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이상 인간의 의사 결정에서 비롯되지 않거나 영적 분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행동의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 젠더 기반 폭력(GBV)

47.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으로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완전한 존엄과 가치는 상품화되거나 특정 문화적 역할, 규범, "남자", "여자", "소녀", "소년"이라는 이미지로 환원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유해한 이미지는 자아, 문화, 사회, 시스템에 의해 내면화되어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되거나 '구원받아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자기 폭력으로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48. WCRC와 다른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이 수년 동안 #ThursdaysInBlack을 글로벌 캠페인으로 채택하여 젠더 기반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가시적인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며 헌신해온 것처럼, 우리 WCRC와 총회는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하고 줄어들지 않는 세상의 상황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49. 젠더 기반 폭력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오용과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WCRC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인정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림 안에서 번영할 수 있는 자원, 기회, 조건을 부여받는 세상을 향해 인내하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하기를 희망합니다.

<sup>6</sup> P. 틸리히, (1969) 종교란 무엇인가? 편집 및 번역. J.L. 아담스 (뉴욕: 하퍼 앤 로우), 73.

## 개혁되기 (BEING REFORMED)

### 다양한 표현의 기독교 정체성

50.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서사적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요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이 주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혁주의 정체성을 고려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51. 누군가 묻는다면: 개혁주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개혁과 사람들은 이 질문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52. 개혁주의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종교개혁이 재발견한 기독교 신앙은 독특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 자체의 정체성, 제도, 역사, 심지어 신앙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거룩한 분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지향점을 묘사합니다. 교단 간의 경계를 구분하고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53.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의 다양한 측면이 강조됩니다.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전통적 영향에서 신흥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은 개혁교회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풍요롭게 합니다. 개혁주의의 기본 통찰의 고전적 구성, 심지어는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의 핵심 원리조차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각자의 도전에 직면하고 각자의 응답을 모색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재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유산은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 상황에 따라 경험된 계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전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에는 태도, 생각, 희망과 두려움, 이상, 세상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 영적 및 도덕적 실천, 교회 조직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55. 개혁주의 세계 전체에 걸쳐 통일된 특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WCRC에 모인 오늘날 개혁교회 가족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56. 개혁교회는 성경을 살아 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구체화된 신앙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도록 성경 전체에 자신을 결속합니다. 여기서 결속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지 서로 경청하고 배우면서 분별하여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깃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은혜, 믿음에 의한 칭의,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성별, 계급, 인종의 평등, 사회적 책임, 모든 신자의 사제직 등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조정되고 심화되고 선명해지는 중심 통찰이며,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감각을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57.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칭의와 정의의 내재적 관계,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의 지배적인 권력 관계에 효과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포함되고, 소유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있는 제도나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하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억압하든, 내면의 이 특별한 정체성은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에는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겸손한 인내로 동료 인간과 지구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58. 개혁교회는 모든 신자의 만인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이는 교회가 교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혁교회는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며 제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공유합니다. WCRC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의 필요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중의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59. 이러한 목소리는 교회에 환경 위기, 글로벌 불평등, 젠더 정의 등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더 용기 있게 참여하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회적, 교회적 불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개혁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진정성의 시험을 통과할 때만(설교하는 것을 실천할 때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하고 예언자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해야 하는지 자기 비판적으로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 및 외부의 갈등과 논쟁에 노출되어 형성된 제국 비판적 자세는 미래의 분별에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대화에 접근하며, 변증을 연마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합니다.
60. 마지막으로, 개혁 교회는 자신들의 공유된 특성과 진정으로 독특한 성격을 칼빈 신학의 지도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 이해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소 도덕주의적인 행동에서 사랑스럽고 정의로운 미적 세심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린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취약한 인간과 그들의 고통을 희생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순은 없습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Irenaeus of Lyon*)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 있는 인간입니다."

#### 돌봄, 사랑, 기쁨의 신학

61.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지역적, 세계적 공간에서 인류 공동체에 만연한 실존적 위협은 모두가 하나님의 살롬 안에서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외면하거나 가려버립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정의에 위배되는 힘과 요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양, 속도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립적이거나 근시안적인 관심에 빠지고 이웃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62.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우리 시대의 엄청난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기쁨을 회복하고 구현하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형성된 삶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의 무덤, 부활, 승천, 성령의 선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 사랑,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돌봄과 사랑, 기쁨을 나타냅니다.

63.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존엄과 희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확인하듯이,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서 충만한 삶을 존엄하게 유지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임종에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나그네 모두에게 사랑의 섬김, 약자와 굶주린 자를 돌보는 일,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서 배려와 사랑, 기쁨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까요?

## 토론 질문

신학 기획문서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다음 질문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서문

- "우리는 진보라는 개념에 반하는 여러 가지 위기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를 경험했던 상황의 예를 공유하세요.
- "신학 자체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이 권력의 도구가 된 사례를 들어보세요.

### 인내의 신학을 향하여

- "인내는 개혁주의 전통의 중심 주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인내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십니다 [...] 그리고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도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보세요.
- "개혁주의 전통에서 인내가 잘못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세요.

### 분별

- "희망의 신학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환멸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토론해 보세요.
- "교회와 많은 사회 전반에서 종말론의 관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수집하고 그러한 경향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토론하세요.
- "우리의 전통은 회원 교회들에게 분별의 마음을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별의 도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도구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우분투의 기본 철학은 사랑과 정의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필리핀계 미국인의 카푸아(kapwa) 신학은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세계, 지구(땅, 바다/강, 공기) 사이의 불가분의 연결 고리를 강조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적 특성과 이 특별한 특성이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 "신학은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구티에레즈)". 해방 신학이 교회의 신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 "토착 철학과 영성은 구체성과 창조와의 연결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토착 철학과 영성이 교회가 신학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 고백

- "바르멘, 벨하르, 아크라의 신앙고백은 WCRC가 다양한 우상 숭배 세력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의의 권력에 맞서고 정의와 평화, 온 피조물의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해방적 코이노니아로의 회심을 촉구합니다." 교회에서 신앙고백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Global Apartheid)"의 개념에 대해 토론하고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증언: 글로벌 위기에 대한 신학적 대응

- "WCRC에게 신학은 핵심적인 증언의 형태입니다."

신학이 증언의 한 형태로서 수행된 사례를 공유하고 그 자체를 증언의 행위로 이해하는 신학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 "근본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의 예를 수집하고 문자적 방식(modus of the letter)과 영적 방식(modus of the spirit)에서 sola scriptura를 접근하는 차이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고후3:6) 어떻게 성경이 교회의 부름받은 개혁과 변혁의 지속적인 필요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민족주의와 권위주의가 심화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어떻게 신학이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지 토론합니다.

- "디지털화와 인공 지능"

디지털화와 인공 지능이 사회, 경제,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세요. 어떤 윤리적 질문이 제기될까요? 이러한 기술의 신학적 토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 "젠더 기반 폭력"

종교 공동체가 젠더 기반 폭력에 인내하며 대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와 함께하고, 교회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폭력 가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에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개혁되기 (BEING REFORMED)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인내합니다."

분쟁, 불의, 폭력,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 "누군가 묻는다면: 개혁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개혁주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이 정체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항상 비판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기독교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혁주의 전통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독특하고, 성경 중심적이며, 내적으로 다양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제국에 비판적이고, 칭의와 정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토론하고 이것이 교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돌봄과 사랑, 기쁨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어떻게 우리의 인내를 지탱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 P4: 선교는 인내로써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신학 네트워크로부터 선교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WCRC의 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이 개념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crceu](mailto:gc2025@wcrceu).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렴한 의견에 따라 컨셉 페이지를 수정한 후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문

1.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변함없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약자, 가난하고 배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고민할 때, 이전 선언문 및 기초 문서(바르멘, 벨하, 아크라)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서의 "추악한 세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추악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라"는 벨하의 요청,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요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처럼 제국주의 권력이 가차 없이, 압도적으로, 파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벨하르)인 교회는 언제나,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세상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크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확신과 긴급함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배제, 폭력의 희생자들의 외침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이라는 칼뱅의 진리를 상기합니다. 따라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곧 정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3.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의에 의해 하나님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는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주장이 옳다면, 기독교 선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동료 인간에게 불의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외침은 신성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파토스(pathos)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부르심이며, 불의를 없애라는 부르심은 신성한 고통을 덜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진리에 뿌리를 둔 우리는 고통의 피해자와 그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도 영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4.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제국 앞에서 '선교'란 무엇인가요? 남아프리카의 신학자 앨런 보에삭(Allan Boesak)이 정의한 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입니다.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무소불위의 지배라는 현실과 정신에 의해 구성됩니다." 마치 전 세계를 소유한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도전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영구적인 전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약속하며,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땅

과 민족을 자신의 모습과 이미지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자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토지 절도, 대량 학살, 고의적인 학살 행위가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선교가 우리의 해석학적 관점이 될 수 있을까요?

5. 따라서 우리는 제국의 강화된 군사적 존재감, 신식민주의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새로운 제국주의 프로젝트, 억압받고 취약하고 소유를 잃은 사람들과 민족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신뢰할 수 있고 자비롭고 예언자적인 존재가 되는 교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 지금,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권력과 힘없는 자에게 말하는 진리"와 "권력과 무력함에 대해 말하는 진리"로서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예언적 신실함이 의심받는다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며 복종시키는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폭력을 내포한 권력의 행사이며, 항상 힘없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M.M. 토마스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권력을 민중의 "존엄성의 소유자"이자 "사회와 사회 역사에 대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참여의 통로"로서의 권력을 말합니다.
7.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선교는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오래 전에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즉 부활은 죄와 의심, 악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창조물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역, 즉 죽음이 최후라는 신화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나스타샤(apanastasia)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해로운 모든 것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반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그러므로 선교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구자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증언과 고난을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크바(Nakba) 이후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 즉 그들의 굳건함, 회복력, 불멸의 희망인 수무드를 통해 이를 실천합니다. 수무드(Sumud)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노력과 이 땅에서 오랜 세월 고통과 핍박을 겪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 추진하는 역사적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 선교와 정착민 식민주의

9.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근대 초기 유럽에서 기독교와 식민주의가 어떻게 국가 건설, 경제 확장, 정체성 형성의 서로 얽히고 설킨 힘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주의를 기독교 및 선교와 분리할 수 없는 유럽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를 우월하고 문명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인종화된 위계질서는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가 일시적으로 타락한 것도, 식민지 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진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신)식민주의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서구 기독교의 자기 이해 모두 식민주의를 통해 깊이 변형되었습니다.<sup>1</sup> 선교와 제국은 상호 의존

<sup>1</sup> 선교사들은 단순히 '얼굴 없는 제국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식민주의 '개종'을 시도하는 등 식민지 정책과 기독교 관습 및 사상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나 L. 로버트, 편집, 식민주의 전환: 선교 역사의 비전과 현실, 1706-1914 (그랜드 래피즈: 윌렘 B. 에드만스 출판사, 2008), 3.

적이었습니다. 이상, 서사, 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교'는 유럽(기독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 이는 식민지 시대의 위계질서와 '인종' 구성에 신학적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에 대한 이해가 19세기에 '인종'이라는 유사과학적 구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종과 종교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에 대한 생명력 있는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는 계급, 인종, 종교, 성별의 교차점뿐만 아니라 종교와 인종 간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의 역사가 인종화, 식민주의,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 선교를 재개념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유럽 제국주의와의 연관성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다시 유럽 중심주의를 간과하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선교 신학은 20세기 반식민지 운동으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선교는 더 이상 '서구에서 나머지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간의 동반자적으로 재개념화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신학은 콘라드 라이저(Konrad Raiser)가 창안한 기독교 중심적 보편주의와 자신들이 믿는 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믿었던 선교 단체의 과거의 확신을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 기독교는 식민주의를 통해서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이나 노예가 폭력적이고 인종화된 기독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 관습과 사상을 '번역'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sup>2</sup> 이를 통해 식민지 세력은 종교와 자유, 노예제도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인종화된 기독교에 뿌리를 둔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지탱하고 주는 방식으로 선교를 형성하고 싶다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13. 여기에는 (선교와 관련된) 특권을 이해하고 해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백인 특권과 기독교인 특권의 교차점이 중요합니다. 백인 및 '기독교인됨'과 관련된 선호와 편견은 선교의 맥락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 또는 선교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인 기관과 단체의 업무 문화와 선교에 관한 지식 생산이 그 예입니다. 백인 기독교인의 특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방식, 인정되는 지식의 종류, 인정되지 않거나 보다 덜 인정되는 형태의 지식(구체화된 지식, 생생한 경험, 비 서구 언어로 표현되거나 인종화되고 비인간화된 집단이 표현한 지식)에서 재생산됩니다.
14. 기독교 신학은 북미에서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호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착민 식민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개념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도 해당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감히 호주나 북미에서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지난 20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 시오니즘(Christian Zionism)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해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5. 팔레스타인 신학자 미트리 라헵(Mitri Raheb)이 정의한 기독교 시오니즘은 메타내러티브 내에서 성서적/신학적 구성을 사용하여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정착민 식민주의를 지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요소를 고려하는 기독교 정치적 영향력 행사입니다. 이 정의는 문자주

---

<sup>2</sup> 로버트 산네, 편집자, 식민주의 전환, 4.

의자부터 홀로코스트(Holocaust) 이후 신학, 극보수주의자부터 자유주의자까지 상당히 다양한 기독교 시오니스트의 성서 담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시오니스트가 지지하는 성경적/신학적 근거는 매우 모호하며, 성경의 극히 일부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6. 이 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시오니즘의 로비 측면, 즉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가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시오니스트의 내러티브는 항상 메타내러티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순수한 정치적 로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거대한 계획의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메타내러티브와 함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항상 글로컬 이슈와 고려사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특정 상황에서의 투쟁과 두려움에 함께 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시오니즘을 매우 위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17. 마지막으로, 유대인 식민지 정착민에 대한 기독교 시오니스트의 지지는 "머리"보다는 "가슴"에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경적/신학적 주장이나 합리적 추론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메타내러티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글로컬 고려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기독교 시오니스트의 공통점은 팔레스타인의 시오니스트 정착민 식민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기독교 시오니즘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는 성서 해석학이 아니라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지지 로비 활동입니다.
18. 지난 100년의 역사는 정착민 식민주의가 유대인의 정치적 담론과 관행을 지배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틴 부버, 마크 엘리스, 일란 파페, 산티아고 슬라보드스키, 아탈리아 오메르(Martin Buber, Marc Ellis, Illan Pappé, Santiago Slabodsky, Atalia Omer) 등과 같은 대안적인 유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종교가 팔레스타인에서의 토지 절도, 인종 청소, 대량 학살을 지원하기 위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젊은 세대 유대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19. 정착민 식민주의는 탈냉전 시대에 인류학 및 원주민 연구 학자들이 식민지배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현실, 즉 "사건이 아닌 구조"를 구성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탈식민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재창조를 경험한 것입니다. 정착민 식민주의가 고전적 식민주의나 신식민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정착민 식민주의자들이 점령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원주민에 대한 국가 주권과 사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원주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주민은 이방인이 되고 정착민은 원주민으로 둔갑합니다.
20. 이를 위해 정착민 식민주의는 다양한 메커니즘, 이념적 구조, 사회적 내러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원주민의 땅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텅 빈 땅 또는 불모의 땅으로 묘사되어 정착민들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원주민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인종 차별적 구도로 묘사되는 반면, 정착민은 문명화되고 용감한 개척자로 묘사됩니다. 야만인으로부터 정착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찰 국가가 만들어지고 원주민에 대한 민사 권한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됩니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외부(예: 아메리카, 호주,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팔레스타인)와 내부(예: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모두 전개되며 근대 제국주의 국가 및 토지 구성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주민의 투쟁은 자유를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전멸에 대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 군사화된 선교

21.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렸다는 냉전의 종식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전 세계의 군사화를 촉진하여 전 세계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공동체 사이에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한 단일 제국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폭력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군사 기지와 연간 군사 예산이 1000억 달러(2023년 기준)가 넘는 미국이 이끄는 제국에 의해 전 지구적 차원의 폭력 독점을 허용한 유일한 문명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제국의 주요 동력인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국가는 '불량 국가(rouge states)'로 분류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주요 원동자에 도전하며 폭력의 독점 정도가 낮은 국가들에 맞서 정의됩니다.
22. 제국은 군사화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이며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협상을 방해하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적인 사회 및 정치 운동을 범죄화합니다. 평화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휴전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주시키고, 불구로 만들고, 굶주리게 하는 지속적인 전쟁(전쟁 패러다임)은 평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보는 인권과 평화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일까요? 전 세계의 제국주의적 지정학적 전략을 위한 안보입니다.
23. 제국은 저항이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상관없이 감히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화를 필요로 합니다. 군사화는 제국의 지정학적 의제의 일환으로 자신의 땅이 재구성되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잔인한 강압적 방법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세계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구현합니다. 한 예로, 홍해에서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하기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예멘인들의 저항은 전 세계에 피억압 민족이 주도하는 대안적 지정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호주의 여러 항구에서 평화 운동가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배를 막기 위해 '배 차단(Block the Boat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4.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자 지구의 대량학살은 마치 확대경과 같아서, 정착민 식민주의와 식민지 기독교 유산이 결합된 제국의 장치와 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갈색과 흑색의 몸을 고정관념적 인종 차별로 투사하여, 이스라엘에 '다른' 존재에게만 허용되는 모든 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가 전 세계에 보여준 끔찍한 인간성의 증거는 반대와 저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생명, 생계, 토지, 자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 저항, 희망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전근대적이고 비문명적이며, 야만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자/테러리스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무기에 의해 잔해로 변하고, 미디어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일부 생명은 슬퍼할 수 있는 존재로, 다른 생명은 슬퍼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25. 그렇다면 교회는 인종주의, 군사화, 자본주의의 세 가지 결합의 맥락에서 '선교'를 어떻게 듣고 이해할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Martin Luther King, Jr.)는 미국을 언급하며 이를 세 가지 죄악(물질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으로 명명했습니다. 교회는 흑인의 삶(특히 반흑인 인종주의)과 다양한 인종 공동체(아시아, 라틴계, 중동)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옹호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무슬림을 위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선교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전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21세기 인종화된 생명 운동에서 기독교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흑인과 갈색 신체의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비인간화와 '타자화'의 맥락에서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26. "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에게는 이 용어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관한 이 문서의 맥락에서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부색이 대접이나 대우를 결정하는 특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세계적 상황에서 교회는 오늘날 선교를 성찰할 때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씨름해야 합니다.
27. 다양성(피부색, 체형 및 체격, 민족, 능력 또는 장애, 언어, 문화, 전통, 종교,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갈색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권력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위는 항상 모욕감을 주지만, 그 경험의 폭력의 강도는 특정 공간(예: 공공 공원 산책)에서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흑인 또는 갈색이라는 이유로 '보안 우려', '의심스러운', '위협적인', 심지어 '용의자'로 취급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흑인/갈색인 경우 국경과 이동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유색인종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폭력과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화된 국경과 유색인종에게만 부과되는 법규에 직면하면서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무거운 배를 타고 탈출한 사람들 중 일부는 해안가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28.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은 흑인과 갈색 신체를 불구 또는 사망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불균형적으로 정상화하여 이들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규범적 백인성과 관련하여 '타자성'을 이유로 범죄성을 집단에 투사했습니다(The Right to Maim, Jasbir Puar, 2017). 푸아르는 이스라엘 국가와 같은 불구화 정권이 "생체정치적 통제의 한 형태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신체와 환경을 "불구화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약화시키는 방식"(푸아르, 128쪽)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 드론 공습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망한 흑인과 갈색 비전투원들을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비무장 흑인과 갈색인들을 총으로 쏘 죽인 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훈련된 제국의 위협 분석 관점은 현지에서 아프리카/아랍/남아시아/라틴계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강도와 의심의 눈초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흑인이나 갈색의 신체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9.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흑인과 갈색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사역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 진정한 사명에 필요한 관계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나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있나요? 있다면, 어떤 관계인가요? 교회는 피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나요? 인종화된 사람들이 위협으로 여겨지고 교회나 기독교인이 문제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과 희망을 찾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 진리와 여러 답이 존재하는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라는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선교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구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대하여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요?
30. 선교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타자'와 우리 자신 안의 권력을 대체하고 도전하는 진정한 우정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왜 종종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추구는 이러한 대화에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대화를 향한 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사회와 역사의 현상 유지를 파괴합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3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이름을 붙이고 저항하며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32. WCRC의 역사는 회원 교회와 이러한 지배와 억압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참여의 역사였지만, 교회 선교의 핵심인 옹호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적 이해에서 옹호는 신학적으로 근거한 기독교적 증언의 한 형태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특히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3. WCRC는 Global Reformed Advocacy Platforms for Engagement, GRAPE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World Communion의 자기 이해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GRAPE는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WCRC의 회원 교회들이 현지와 각 상황에서 옹호 활동을 할 때 서로를 지원하는 지역 네트워크의 연합체입니다. 글로벌 GRAPE 플랫폼은 지역 플랫폼의 캠페인을 담당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옹호 활동을 조정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플랫폼은 에큐메니컬 운동 및 시민 사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개발됩니다.
34. 이를 바탕으로 WCRC의 옹호 활동은 불의, 폭력, 분쟁 상황에서 회원 교회가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WCRC는 회원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여 분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35. 이렇게 지배 세력의 결합에 저항하고 해독하며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탈진실 정치의 영역에서 어려워집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국이 디지털 차원으로 확장되어 더 쉽고 간편한 의사소통, 방대한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쉬운 접근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제국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혜택을 누리며 제국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영역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며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등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사실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여 공적 담론과 정치적 삶을 훼손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신뢰를 파괴하는 '대안적 사실'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인공지능)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AI는 이 모든 것을 더욱 가속화하고, 문화, 종교, 경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퍼뜨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자신의 알고리즘과 이러한 시스템을 소유한 기업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반영하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8:32-33). 이처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는 제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 속박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익 추구하는 금융 권력에 대한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할 진리를 호리고 부정합니다.

## 결론

36.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침의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의 특징과 흔적을 그들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정당하게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거울처럼" 보기 때문이라면, 모든 형태의 차별, 착취, 비인간화는 하나님 자신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37. 오늘날 교회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두드러져 왔으며 현재 많은 교회에서 상당한 추세가 된 현상은 기독교 시오니즘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신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시오니즘은 '기독교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신학과는 달리 기독교 시오니즘은 '인종'의 경계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신학은 현재 팔레스타인/가자지구의 상황에서 심각한 선전 도구로서 글로벌 남부의 교회와 정치에서 놀라운 속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도덕적, 신학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이데올로기와 그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지지를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크바 이후, 특히 현재의 대량 학살 전쟁에서 이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8. 벨하르에 이어서: WCRC(구 WARC)가 당시의 맥락에서 남아프리카 상황을 고려하고 인식했듯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치적 억압, 사회적 배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저하시킨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끼친 참상을 본질적으로 악하고 인종차별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39. 또한 WCRC가 백인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 시행된 아파르트헤이트 신학을 복음에 대한 왜곡이자 이단으로 간주하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WCRC가 기독교 시온주의 현상을 본질적으로 악하고 인종차별적이며 복음의 왜곡이자 이단으로 고려하고 인식하며 선언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40.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용감한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예언자적 담대함, 신실함, 확고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교제하면서 서 있고, 살고, 증거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the Confessio Belgica Article*) 37조에서 발췌:
  41. "참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한 모든 헛된 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의인과 택함받은 자들은] 수고의 열매와 그들이 겪은 고난의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결백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끔찍한 복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며, 현재 많은 판사들과 민사 재판관들에 의해 이단과 악으로 정죄된 그들의 대의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에 의해 인정될 것입니다."
42. 그리고 벨하르에서(*Belhar*):
  43. "우리는 교회가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당국과 인간의 법이 금지하고 처벌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모든 일을 고백하고 행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 토론 질문: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에 관한 기획문서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다음 질문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토지 절도, 대량 학살, 고의적인 학살 행위가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선교가 우리의 해석학적 관점이 될 수 있을까요?
- 교회는 인종주의, 군사화, 자본주의의 세 가지 결합의 맥락에서 어떻게 '선교'를 듣고 이해할까요?
- 인종화된 사람들이 위협으로 여겨지고 교회나 기독교인이 문제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우리가 복음전도라는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선교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구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대하여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요?



## P5: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일함

우리는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 및 신학 네트워크로부터 이 기획문서에 대한 질적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WCRC의 에큐메니컬과 종교 간 사역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이 개념적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c2025@wcrceu](mailto:gc2025@wcrceu).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렴한 의견에 따라 컨셉 페이지를 수정한 후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문

1. "개혁된다는 것은 에큐메니컬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 그 이상입니다. 이 문장은 개혁주의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을 말하며, 이는 우리의 역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한다는 이해는 에큐메니컬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의회 구조는 교회의 분별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와 전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19세기 말부터 개혁파는 많은 에큐메니컬 기구를 설립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연합되고 연합하는 많은 교회들은 그 뿌리에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에큐메니컬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과 에큐메니컬 교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기독교의 25%만을 대표합니다. 기독교의 3.5%만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로 분류됩니다.<sup>1</sup> 이러한 변화는 회원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파적 유대가 느슨해졌습니다. 많은 회원 교회들은 여러 교파에 소속되어 있으며, 삶의 과정에서 교파를 옮기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잘 정의된 기독교 세계의 구조가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구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여전히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도 수십 년 전과 같이 명확하게 정립된 교단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변화와 변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컬 관계의 발전은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단과 종교를 매우 제한된 내부 역학을 가진 폐쇄적인 단체로 생각하며, 따라서 그 이름 아래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의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5. 다가오는 치앙마이 총회는 개혁주의 자원을 시험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개혁주의 전통은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획문서는 개혁 교회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열린 자세가 변화된 조건 아래에서 우리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사역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를 위한 개혁적 토대 마련

6. 개혁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분열을 추악한 것으로 간주해

---

<sup>1</sup>크리스틴 리에넨만-페린, 세계 기독교의 변모, 참조: 글로벌 관점의 에큐메니컬 신학, 35-55.

왔습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이 크랜머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분열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교회의 지체들이 분열되어 몸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sup>2</sup>

7.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일치는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의무임을 인식하며, 겹세마네에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요 17:21) 또한 이러한 일치는 교회의 머리로서 민족과 집단 간의 분리, 적대, 증오의 죄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시화되어야 합니다(벨하 2장).<sup>3</sup>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과 서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에 연결됩니다. 정의는 일을 바로잡는 문제이고, 화해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치의 추구는 정의의 추구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고후 5:19)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문화 또는 민족주의적 종파주의부터 사회의 성격에 대한 심오한 반대(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의 예처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개혁파보다 더 많은 분열과 분리를 겪은 기독교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대부분 불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갈등의 유산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앙적 신념이 정치화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의 분열과 분리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일치를 위한 이러한 증거와 헌신을 계속합니다.(벨하르 2)
9. 교회의 일치와 마찬가지로, 종교 간 참여에 대한 개혁파의 열망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참여는 공동선을 위한 상호 이해, 존중, 관용, 협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우리의 확인에는 종교 간 대화, 참여, 협력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교리서 1.5.8.)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교리서 1.15.4) 죄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존 칼빈은 갈라디아서 6장 9-1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잔인함과 악의 희생자인 사람들의 인격에서 상처받고 분노를 느낄 만큼 사랑과 존경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고 설교합니다.<sup>4</sup>
11. 종교 간 교류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이 경고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지 않기 위해 진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리서 II.2.15)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교회의 증거에는 "[이 땅의] 모든 주민과 함께하고 사랑과 고통을

<sup>2</sup> 크랜머에게 보내는 편지(1552), 존 칼빈 선집: 전도지와 편지, 4권.

<sup>3</sup> 벨하르의 고백, [[https://kerkargief.co.za/doks/bely/CF\\_Belhar.pdf](https://kerkargief.co.za/doks/bely/CF_Belhar.pdf)].

<sup>4</sup> 존 칼빈, 신명기 설교 4:39, 43, 로널드 윌리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 교리 (유진: 위프앤스톡, 1997), 149에서 인용.

통해 희망의 표징이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sup>5</sup>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증거를 계속합니다.(아모스 5:24)

12. 2032년 총회가 열릴 때까지 WCRC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사역을 위한 토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현재 세계가 폭력의 확대, 사회 붕괴의 증가, 생태계의 파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악한 세상"(아크라 신앙고백, § 7)에 살고 있습니다<sup>6</sup>. 이 상황은 심각하며,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상처를 입었고,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부르심에 헌신하는 새로운 연합과 전략이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이 기획문서의 F.1.a. 참조).
13. WCRC는 스스로를 "커뮤니언을 위해 부름받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WCRC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사역을 이끄는 지침이 됩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엄청난 상처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WCRC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한다는 개혁주의적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평은 일치, 화해, 정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형성합니다.

####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협력

14.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실천적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컬 파트너와의 협력과 종교 간 파트너와의 협력은 어떤 면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에큐메니컬 협력

15. 에큐메니컬 참여에 대한 개혁주의적 접근 방식은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셨듯이, 우리도 화해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위태로워집니다. (고전 5:16-18)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은 비극적이고 심지어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4)고 명령받았습니다.
16.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의 본질을 구체화합니다. 많은 지체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서로의 지체입니다(롬 12장, 고전 12장). 우리의 연합은 정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역동적인 친교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다름을 포용하고 분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7. 니케아 신조에서 일치와 보편성은 교회의 네 가지 표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고유한 다양성과 함께 일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획일성을 강요하는 일치가 아니며, 교회가 고정되거나 최종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

<sup>5</sup> 대만 장로교 신앙고백 [[https://english.pct.org.tw/en/Who\\_con.htm](https://english.pct.org.tw/en/Who_con.htm)].

<sup>6</sup> 아크라 신앙고백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15/04/TheAccraConfession-English.pdf>].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들리고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성례가 집행되는 것을 보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교리서 IV.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화해와 정의를 추구할 때 더욱 효과적인 증거와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19.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가 삼위일체적 사랑의 친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치 추구는 화해와 정의의 추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WCRC는 칭의 교리 공동선언(JDDJ)<sup>7</sup>에 서명하도록 초대 받았을 때, "칭의와 정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렸습니다. WCRC는 그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칭의가 "오늘날 세계의 불의, 억압, 폭력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통찰을 존중하는 연합 선언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JDDJ 20)
20. 우리의 연합은 신앙과 교회됨의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요구하며, 이는 '교회는 개혁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는 우리의 말처럼 교회의 삶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혁 사역에 대한 우리의 개방성은 개혁파가 에큐메니컬 파트너를 포함한 공동의 분별 과정에 특별히 헌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개혁을 분별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협의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에큐메니컬 파트너를 갖는 것은 우리의 비판적 성찰에 필수적입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분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 종교 간 협력

22.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는 확신은 우리를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돌봄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리서 I.5.8) 이러한 깨달음은 개혁파가 교회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근본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문화, 종교 및 기타 사회적 범주와 동일시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은 거울을 보듯 인간을 바라보시며 자신을 바라보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도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또한 종교 간 참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과 공통된 인류애와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합니다.
24.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명은 모든 기독교인의 기본이며,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전통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칼빈이 지적했듯

<sup>7</sup> 칭의 교리 공동 선언문, [https://lutheranworld.org/sites/default/files/2022-02/joint\_declaration\_2019\_en.pdf]

이, "전 인류가 신성한 교제의 유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이웃이 되려면 그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sup>8</sup>

25. 우리는 나그네를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명령(레19:33-34)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종교 간 대화는 종교적 타자에 대한 환영과 환대를 표현해야 합니다. 종교적 정체성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고 "모든 인간의 창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생명을 향한 동행 96).<sup>9</sup>
26.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성과 다원성이 특징입니다. 최근의 이주로 인해 우리 커뮤니티에는 신앙, 이념, 신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생명을 가져다주며 생명을 긍정하는 모든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성령은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는 다른 신앙 전통에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생명을 향한 동행 93) 따라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 전통, 세계관, 영성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타자'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표현했듯이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든, 누구에 의해 밝혀지든, 성령으로부터 온다."<sup>10</sup>
27.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희망에 힘입어 우리는 겸손과 개방성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할 준비를 한 뒤 대화에 임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대화는 생명에 대한 긍정과 창조의 온전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공동의 삶과 목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동행 94)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존중을 추구하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28. 우리는 에큐메니즘과 종교 간 협력의 작업이 최근 더욱 시급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처 입은 세상의 현실이라는 시대적 징조를 분별할 때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상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상처입니다. "동료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회적 비참함의 배후와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폭행당하는 자를 희생시키는 데 동참하는 것을 훨씬 더 꺼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sup>11</sup>
29. 세상의 상처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시대의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sup>8</sup> 존 칼빈, 마태복음 주석, 5:43.

<sup>9</sup>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선교와 전도, [https://www.oikoumene.org/sites/default/files/Document/Together\\_towards\\_Life.pdf](https://www.oikoumene.org/sites/default/files/Document/Together_towards_Life.pdf).

<sup>10</sup> 울리히 츠빙글리, 섭리에 관한 논고, 153.

<sup>11</sup> 니콜라스 볼터스토프, "하나님의 상처: 칼빈의 사회 정의 신학", 마크 고닉과 조지 톰슨, 부르심 듣기 - 전례, 정의, 교회와 세상, (그랜드 래피즈: 에드먼즈, 2010) 118.

## 추악한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

30.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한 풍성한 생명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요한복음 10:10). WCRC의 에큐메니컬하고 종교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과 시대 속에서 증거하고 일하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합니다.
31. 이 시대는 '모두를 위한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공통의 인류애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비인간적인 세력이 우리 세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분별합니다. 이러한 힘에는 인종차별, 권위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생태학살,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의 기획 문서 참조) 이 모든 죽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파트너들과 함께 저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32. 우리 시대는 교회에도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사회/정치적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고 소명에 맞지 않는 의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교회는 예언자적 정체성과 올바른 소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국가가 아니며 국가의 기관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바르멘 선언의 증언을 기억합니다(바르멘, 제5테제). 종교 공동체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에큐메니컬/종교 간 참여를 통해 어떻게 서로가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33.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바르멘보다 조금 더 나아가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 질서의 희생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퀴 아래 있는 희생자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퀴 자체를 붙잡아야 한다.<sup>12</sup> 본회퍼가 '제3의 가능성'이라 부르는 것에서 교회의 역할은 불의한 정부의 '방해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4. 불의의 문제는 그 규모와 범위가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공동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35.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회원 교회들이 다양한 곳에서 에큐메니컬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일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도적 교회 구조 밖에서 활발한 에큐메니즘(및 종교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에큐메니컬 정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즘이 구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에큐메니즘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사명을 위해 봉사하는 운동입니다. 구조와 제도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운동과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개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에큐메니즘의 중요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에큐메니즘을 심화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

<sup>12</sup> 디트리히 본회퍼, "베를린의 교회와 유대인 문제": 1932-1933, 디트리히 본회퍼 저작집, 12권 (미니애폴리스: 포트리스 프레스, 2009), 365.

36. 마찬가지로 종교 간 대화, 참여, 협력의 적절성과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합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되거나 기독교가 소수 종교인 상황에서는 종교 간 참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교파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독교 전통을 넘어서는 종교에 대한 참여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의 근거를 어떻게 하면 함께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37. 현재의 현실은 종교적 다원성입니다. 이는 우리 친교의 많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주, 이주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종교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활동은 어떻게 상호 존중, 종교적 관용,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종교적 다원성을 탐색할 수 있을까요?
38.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멸과 박해, 폭력이 종교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이나 차별 금지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잡함을 함께 충실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39.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현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의 증가입니다.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박해와 폭력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가 지배적인 종교일 때, 특권과 권력의 유혹에 저항하고 타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적인 구조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40.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신학적 신념에 따라 우리가 옹호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다른 기본 인권이나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어떻게 함께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41.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상처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노예제,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기타 불의 등 생명을 부정하는 제도와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함으로써 사람과 생명에 대한 죄에 공모했음을 고백합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도 상처를 받았고, 개혁주의 기독교인들도 상처를 받았던 혼합된 역사가 우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치유란 어떤 모습일까요?
42.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한 생명을 원하십니다(요한복음 10:10).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증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선교임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곳을 찾고, 그러한 참여의 특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더 넓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묻습니다.
43. 아크라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위해 언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좁은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적 불의와 생태 파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의가 있는 곳을 선교의 초점으로 삼습니다. (아크라 신앙고백, 20-22).

44.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는 "변두리에서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 자, 남겨진 자의 편에 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세계 정세에 따라 변방과 소외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부가 어디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45. 모든 종교 전통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종교 내부와 종교 간의 관계를 손상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와 기억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 성찰과 용기 있는 고백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치유하는 작업은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46. 하나님은 이미 저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협력에 참여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희망을 품고 대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비추는 기회가 됩니다

####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하기

47. 개혁파에게 교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 부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이 지속적인 세 가지 사역에 참여합니다. 예언자적 증거는 교회와 공공의 영역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사장적 증거는 모두를 위한 중보기도와 교회와 세상에서 화해의 사역으로 구성됩니다. 왕의 사역은 악과 불의에 저항하고 모든 주권 없는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승리를 증거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48.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파트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에큐메니즘과 종교 간 협력의 사역에서 우리의 증거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 에큐메니컬 파트너와 함께 증거하기

49. 에큐메니컬 참여는 모든 기독교 전통의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며,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표징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러 교파 간의 관계에서 상호 인정과 화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분열의 중심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와 씨름하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0.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더 광범위한 불공정한 시스템과 구조에 함께 공모했음을 인정합니다.
51. 우리는 교회가 비판적 담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시대에 우리의 공동 증언과 사명을 이끌어줄 절실한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담론이 변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보편성이 깊다는 증거이자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왜곡된 대중 서사에 맞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52. 이를 위해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특히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JDDJ가 제공하는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3. 이러한 참여를 잘 보여주는 이니셔티브는 로마에 새로 설립된 개혁 에큐메니컬 사무소(Reformed Ecumenical Office, REO)입니다. 로마는 성공회 센터와 바티칸 교황청 그리스도교일치성(Anglican Centre and the Vatican Dicastery for Christian Unity) 등 여러 에큐메니컬 파트너가 상주하며 일치와 정의에 관한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에큐메니컬 공간입니다. WCRC,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 발덴시아 교회(Waldensian Church) 간의 파트너십인 REO는 이러한 논의에 개혁파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에큐메니컬 관계를 증진하며,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연대를 형성합니다.

### 종교 간 동반자와 함께 증거하기

54. 종교 간 이니셔티브는 가까운 이웃과 더 넓은 이웃의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인류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 피조물에 대한 보살핌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때 종교 간 관계가 강화되고 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5. 우리의 희망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故김용복은 이를 친목(conviviality)과 아프리카의 우분투 개념("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의 융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컨비벤시아-우분투(Convivencia-Ubuntu)는 다른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키면서 일부 인간만을 우선시하는 지속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에 맞서 모든 생명체의 번영을 포함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상합니다. 조이(zoe) 또는 생명과의 연대를 구성하는 이러한 공동생활은 종교 간 관계와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56. 역사적으로 WCRC는 종교 간 관계보다 에큐메니컬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커뮤니티로서 우리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커뮤니티 안에서 더 많은 관심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이 소수이고 종교 간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회원 교회들로부터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 정의, 지속 가능한 관계, 삶의 즐거운 긍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어떻게 종교 간 참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57. 종교 간 관계에 대한 WCRC의 접근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협력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경멸, 박해 또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종교인에 대한 경멸이나 두려움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8. WCRC의 종교 간 사역은 다른 파트너, 특히 이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기독교 활동가 및 단체(예: WCC, Lutheran World Federation, Vatican Dicastries for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World Evangelical Alliance)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토론 질문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에 관한 기획문서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다음 질문들이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서문

- "개혁된다는 것은 에큐메니컬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이 어떻게 교회의 에큐메니컬 관계에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탱해 왔는지 예를 들어 보세요.
- "에큐메니컬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것이 에큐메니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하세요.
- "현재의 에큐메니컬 구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여전히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려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개혁파보다 더 많은 분열과 분리를 겪은 기독교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내 또는 다른 교회와 관련된 분열의 사례를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주의 전통의 자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에큐메니즘과 종교 간 참여를 위한 개혁적 토대

(아래 장의 심층적인 논의도 참조하세요.)

- 벨하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일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 일치를 이끌어낸 화해의 과정의 예를 공유하세요.
- "종교 간 대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토론하세요. 특히 각자의 상황에서 종교 간 참여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 "에큐메니즘은 구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에큐메니즘의 중요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 "많은 지체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교회는 한 몸입니다."

다양성이 우리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고, 그 과정에서 발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칭의와 정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칭의가 오늘날 세상의 불의, 억압, 폭력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개혁파의 신념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기독교가 아닌 종교, 전통, 세계관, 영성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타자'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 "세상의 상처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함께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추악한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

- "우리는 추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 개념이 노예제,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와 같이 생명을 부정하는 제도와 구조를 인식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떻게 촉구하는지 토론해 보세요.

-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충만한 생명을 원하십니다(요한복음 10:10). 하지만 우리는 '모두를 위한 충만한 삶'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비인간적인 세력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현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의 증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신학적 신념에 따라 우리가 옹호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다른 기본 인권이나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함께 성찰할 수 있을까요?

###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상처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폭력을 확대하고 사회 붕괴와 생태 파괴를 증가시키는 데 연루된 사례에 대해 토론하세요. 치유란 어떤 모습일까요?

- "아크라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위해 언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초점으로서 언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불의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며, 단지 좁은 종교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모범을 따라 "주변부에서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계속 변화하는 상황과 세계 사건들 속에서, 주변부와 소외되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날 주변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주변부를 구성하는지 살펴볼까요?



# 원주민에 대한 WCRC의 헌신: 대화에의 초대

## 머리말:

1. 원주민에 대한 WCRC의 헌신은 2010년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총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헌신이 WARC와 REC의 헌신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원주민에 대한 헌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총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카우보이 신학으로부터 교회를 구하는 것이 원주민 신학의 임무라는 리처드 트위스(Richard Twiss)의 UGC 성명에서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2.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이누이트 및 메티스 원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WCRC의 연합 총회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문화적, 경제적, 신학적 오만, 교회론적 패권주의, 신학과 교회를 가르치는 방식,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배반한 무수한 방식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3. 201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총회에서 Action 55가지 중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i. 원주민과의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
  - ii. 발견론/교리(the doctrine of discovery)에 대한 신학적 탐구
  - iii. 그리고 대다수가 원주민으로 구성된 특별 실무 그룹 구성
4. 만들어진 핵심 그룹은 원주민과 협력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 목표

- 글로벌 맥락에서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원주민에 대한 시사점
  - 탈식민주의 전례와 신학에 참여하기
  - 원주민 상황에 적합한 변혁적 신학교육을 향한 모색
5. 또한 아시아, 남미, 북미 등 3개 대륙에 걸쳐 3년간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직원 역량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 차례의 컨설팅 중 한 차례만 진행되었습니다.
  6. 따라서 차기 총회를 준비하면서 북미와 남미 대륙이 함께 원주민 신학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의에서 나온 대화의 초대장입니다.

## 대화의 초대장

7. 에큐메니컬 운동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실제로 WCRC와 회원 교회들 안에서 원주민들의 공통된 경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헌신과 열망의 표현이 이와 같은 문서에서 반복해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규모 회의가 끝나고 예산이 줄어들면 원주민에 대한 리더십, 그들의 정의에 대한 관심, 그들의 지혜와 집단적 해방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다음 대규모 회의까지 보류됩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경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한 형태로 사용하며, 많은 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원주민의 삶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새로

운 방식과 활동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언급합니다.

8. 식민지/신식민지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현재 진행형이며, 위기입니다. 또한 만성적이고 체계적이며 서서히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에 맞서기 위해 식민지 프로젝트의 명칭에 신식민주의적 맥락을 포함시켰습니다. 식민주의 사상은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 형태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심오하고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식민주의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식민주의를 탈식민화하고 집단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9. 따라서 이번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원주민들은 입장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WCRC와 많은 회원 교회 및 기타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전 세계 원주민의 정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독특한 곤경을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원주민의 경험, 리더십, 모임 및 사역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항상 임시 프로젝트로 취급되었습니다. 2017년 총회는 신학에 관한 개념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신학을 하겠다는 약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sup>1</sup> 또한 총회는 "친교와 정의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운영 원칙으로 확인했습니다.<sup>2</sup>
10. WCRC 총회는 2017년 정의에 관한 기획문서에서 "인류와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기후 변화와 파괴적인 산업에 기반한 개발 패러다임, 탐욕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비전으로 인해 파괴된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sup>3</sup>
11.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원주민 교회 및 지역사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반복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기후 비상사태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의 보호 및 보전과 관련하여 교회가 '원주민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먼저 질문에 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원주민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 미국의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Adam Grant)는 다음과 같이 트윗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려면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움에는 오늘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면 어제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은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따라잡는 방법입니다."<sup>4</sup> WCRC 회원 교회들이 진정으로 고백과 정의를 지키고 억압의 구조와 제도에 의해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교회들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럽-기독교 식민지 프로젝트가 후기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

<sup>1</sup> <https://wcrch.org/wp-content/uploads/2018/05/GC2017-Minutes-EN.pdf> p. 242

<sup>2</sup> Ibid...

<sup>3</sup> <https://wcrch.org/wp-content/uploads/2018/05/GC2017-Minutes-EN.pdf> p. 248

<sup>4</sup> 아담 그랜트(@AdamMGrant), 2021년 9월 13일 오전 6시 29분

## 신학과 정의 사이의 긴장

13. 회의에서, 우리는 교회 조직들 사이에서 '생각'과 '행동' 사이의 괴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정의를 위한 교회의 행동은 제시된 신학에 비해 움직임이 느려 멀리 뒤쳐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찰과 행동에서 토착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삶에서 토착성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신학에 대한 토착적 접근은 말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서구 신학은 추상적 합리화에 특권을 부여했지만, 토착적 스토리텔링은 신학을 하는 대안적인 방식입니다.
14. 어쩌면 원주민 문화의 패턴과 이해는 우리 원주민의 삶의 방식에 내재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내러티브를 인식하지 못한 교회보다 '기독교의 핵심'을 더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5.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질적인 사역의 표현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교회는 문서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을 만들고 제공하는 관행에 갇혀 있습니다.
16. 교회는 스스로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만들어냈고, 그 무게에 짓눌려 신학은 쌓여만 가는데 정작 '실천'에 이르거나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그것을 페이지 밖으로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동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해 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원주민은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해방을 목표로 신학을 하겠다는 WCRC의 약속에서 잘 드러나며(이 문서에서 강조); 진정한 해방 신학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해방도 추구합니다. 교회는 아직 자신의 신학, 선교, 사역, 행정, 운영방식을 탈식민주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억압하는 기반이자 존재로서 스스로의 해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17. 우리는 교회가 집 없는 사람들(주변인)에게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고민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sup>5</sup> 부자에게도 집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단체가 사람들의 실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18. 종종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주민 교회가 아닌 쪽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는 "과거에 대한 대가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대화 초청을 통해 교회가 '돈'을 넘어서 '정의'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상 교회는 계속해서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중 정체성 - 원주민과 기독교인

19. 문제는 기독교 전통과 세상 문화 사이의 단절된 관계입니다. 원주민과 관련하여 많은 교단과 에큐메니컬 단체는 혼합주의 또는 문화적 전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종교, 문화 또는 사상 학파의 융합 또는 융합 시도를 의미합니다. 문화적 전유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관습, 관행, 사상 등을 다른 민족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더 지배적인 민족이나 사회에서 발생합니

<sup>5</sup> 예를 들어,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에서 3D 프린팅 주택을 예약제로 제공하는 작업이나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우편번호에 저렴한 원주민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밴쿠버의 퍼스트 유나이티드 교회 공동체 사역 협회 프로젝트를 살펴보세요.

다. 문화적 전용은 종종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문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20.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서유럽 기독교에 동기를 부여한 하나의 자본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원주민 영성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롭고 다른 단어를 찾는 것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21. 기독교와 원주민 영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원주민은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는 전통적 또는 의례적 방법을 찾아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몇 세대 전에 자신의 부족이나 국가에 가져온 기독교의 형태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주민 문화를 악으로 보는 이러한 이해는 원래 선교사들이 가르쳤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제 많은 나이든 교인들에 의해 내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기저에는 원주민들의 장로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로입니다.
22. 그러나 유럽 기독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이러한 신앙 이해를 후진적인 것으로 폄하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원주민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이해를 수용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가 공유했던 신앙 방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원주민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 번째 접근법은 기독교 신앙 안에 문화의 측면을 통합하는 중간 길입니다. 필리핀 신학자 안스가르 추퐁코(Ansgar Chupungco)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문화에는 그러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3. 교회는 역사적으로 원주민에 대한 영적 폭력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왔고, 이따금씩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영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sup>6</sup>
  - 개인이 선호하는 영적 또는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영적 또는 종교적 길이나 관습을 강요당하는 경우
  - 개인의 영적 또는 종교적 전통, 신념 또는 관습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경우 또는
  - 전통적 또는 가족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24. 각 교단은 영적 폭력의 역사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자기 성찰과 고백, 회개에 나서야 합니다.

#### 이슈에 대한 신학적 성찰

25. 교회는 원주민들이 기독교와 원주민의 존재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도전에 대한 원주민들의 모든 반응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신앙의 표현을 재건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원주민에게 기록 및 자원을 개방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26. 교회는 또한 원주민 언어나 지식을 사용하지만 신학은 여전히 유럽 중심적인, 즉 극단적인 식민주의 사례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교회가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현재의

---

<sup>6</sup> 캐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캐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6권: 캐나다의 기숙 학교: 화해 (몬트리올 & 킹스턴: 맥길-퀸즈 대학교 출판부, 2015), 96.

사회 정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언어는 문화의 요람입니다.

27. 교회들은 선교의 신학을 부모 교회가 원주민 '자녀' 교회를 양육하는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제안/권장 사항

- i. 원주민 언어에는 문화적 인식 방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재단은 언어 회복과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해야 합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 언어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ii. 교회는 원주민 세대 간에 원주민 지식의 전승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문화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대부분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에 점점 더 의존하는 세상에서 이는 원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원주민의 지식 방식을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 iii. 교회는 또한 비원주민 교회에 초점을 맞춘 교육 자료를 만들어 문화적 전유, 혼합주의, 영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다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원주민의 지식의 강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도구, 동영상,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v. WCRC가 교회들을 지원해야 할 일은 전 세계 원주민들로부터 화해와 관련된 모범 사례와 정부, 민간 및 교회와 협력하는 방법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

28.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위기는 삶과 죽음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원주민은 계속해서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성 약물 위기에서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이 부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 트라우마와 세대 간 트라우마-모두 교회가 명시적으로 저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이 묵인하는 행위;
- 원주민 언어와 문화의 소멸
- 원주민을 덜 가치 있고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그리고 여전히 간주하는) 유럽-기독교적 인종 분류의 영속화.

29.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원주민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고착화된 다세대 빈곤과 무주택 문제
- 약물 사용 장애 및 기타 중독(도박, 음란물 등)
-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유능한 치료 및 치유 센터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 살해 및 실종된 원주민의 전염병
- 건강 관리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 적절한 음식, 건강한 음식,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에 대한 접근성
- 전통적인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 독성 오염이 없는 깨끗한 식수 및 고향에 대한 접근성
- 적절한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제공
- 사회적 위기와 관련된 낙인
-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전반
- 준군사조직과 군대에 의한 경찰의 군사화와 토지 및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무장 폭력의 지속
- 원주민에 대한 과도한 감금
- 치유를 위한 적절한 기회, 지역사회 및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회
- 국가 및 기업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을 확인하거나 시행하는 데 계속 저항하는 정부
- 모든 상황에서 규범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 또는 사망 상황을 초래하는 위협

30. 이러한 어려움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31. 교회가 스스로의 해방과 유럽 기독교 식민주의 사상의 지속적인 역학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원주민 지도자들, 즉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 권력에 접근하거나 부패를 통해 현상 유지를 지속하는 사람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매우 식민화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말은 공동체의 외침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할 때 교회는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원주민 지도자들이 다른 원주민을 해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32. 또한 교회는 구전 전통과 대면 관계 형성을 통한 문화 간 학습보다 문서화된 말씀을 중시합니다.

33. 원주민들은 이러한 중첩된 사회적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전 전통은 기록된 말과 동일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올바른 관점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성경은 목격자로부터 시작된 구전 전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고통과 함께하는 사역은 연민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 예수님은 항상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굶주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죠.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원주민 기독교인들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이

며 우리의 필요는 지구와 분리되지 않는 화해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에서 공감에 기반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 이야기를 통해 고통에 다가가기(예수님은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 원주민 문화는 종종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며, 우리는 원주민의 목소리가 그들의 진실과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대담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원주민의 존재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포괄하는 프로토콜과 절차를 보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 기도를 통해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열린 문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 교회는 원주민 공동체가 해로운 신학과 해로운 실천을 가져올 수 있고 식민지 시대의 피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회 내 원주민 리더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치유되지 않은 원주민은 청중을 확보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다시 해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 원주민의 가치를 잘못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원주민 사역은 원주민의 목소리와 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부터 실행, 목회적 돌봄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원주민과 함께하는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야 하며, 신뢰를 언약적 관계로 간주해야 합니다.
- 교회는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 목회적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식량 공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의 사역 등 해결책을 위한 자금 지원과 권한 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기후 비상사태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보살핌

34. 현지 원주민의 생생한 경험을 중심에 두는 것은 전통적인 원주민 삶의 방식의 강점과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추출주의 경제의 영향을 모두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지의 생생한 경험을 중심에 두는 것은 사람과 지구의 상처를 보듬음으로써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은 영적 실천입니다.
35. 토착민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으며, 토착민 공동체의 이주는 지구의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주를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산불, 허리케인 및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된 기타 급격한 기상 이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비상사태와 지구 자원의 추출은 전통 음식에 대한 접근성, 전통 수확 및 채집 방법, 전통 토지에 대한 접근성, 원주민의 기대 수명 등 원주민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이 병들면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원주민이 전통 영토에 대한 남용에 저항

하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합니다. 토지를 보호하는 것은 원주민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36. 따라서 원주민은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맞서 땅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과 국제 및 국내 환경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도록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회가 있으며, 교회는 자신의 땅을 지키는 원주민들로부터 배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37. 교회는 역사적으로 창세기의 지배권 이야기를 사용하여 창조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훨씬 초과하는 자원을 지구에서 무제한으로 채취하는 것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적인 창조 이야기에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상반된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적 내러티브조차도 인류를 지구와 분리시키고, 인간의 삶을 지구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지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원주민의 공통된 세계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배 내러티브에 기반한 추출주의 경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8. 정치적, 사회적, 교회적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하며, 원주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주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균형 잡힌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원주민 경제와 천연자원의 사용은 원래부터 재생 가능한 방식이었으며, 전 세계가 이러한 지혜를 활용하고 모든 생명의 방식과 주기를 따라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39. 우리는 창조 질서 전체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과 정의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로워스의 도넛 경제학 모델은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통합적, 재생적, 재분배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면서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지구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sup>7</sup>

---

<sup>7</sup> <https://doughnuteconomics.org/about-doughnut-economics>  
2024년 4월 20일 액세스 기준



교회를 향한 질문과 제안:

- i. 무료, 사전 및 사전정보 동의(Free, Prior & Informed Consent, FPIC) - 교회가 정부와 기업이 UN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sup>8</sup>)에 정의된 FPIC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보장하도록 촉구합니다:
  -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구축 및 목소리 확대
  - 옹호 및 대정부 관계
  - 주주 옹호 및 기업 참여를 통해 환경과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및 국내 법률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 오염 방지, 원주민과의 FPIC 참여 의무를 계속 무시하는 경우 지분 매각
  - 상호 번영을 위해 모든 생명의 균형을 존중하는 재생 가능한 사업 방식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ii. WCRC - 도넛을 사회 기반이 부족하거나 지구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모델로 채택하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 iii. 균형을 되찾은 세상에서 우리의 집단적 학습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 교회가 원주민의 전통 지혜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만들어 우리의 경건한 글을 보완하도록 장려하세요.

<sup>8</sup> UN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2조 32항.

## 토지 반환, 원주민 권리 및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40. 원주민의 땅 되찾기 운동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땅과의 연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식민지배는 식민지 패권주의에 의해 원주민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거나 법적 허구인 발견의 교리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UN 원주민 권리 선언은 원주민 인권의 관점에서 토지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 인권 문서입니다. 원주민의 권리와 우리의 당연한 책임은 우리의 땅에서 구체화되고 실천됩니다.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80%가 원주민의 전통적 토지에 존재합니다. 반면 원주민 영토는 전 세계 영토의 5%에 불과합니다. 원주민이 최고의 지구 보호자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41. 우리가 과라니-카이오와족(Guarani-Kaiowá)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식민주의로 인해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집단적 해방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원주민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코르딜레라족(Cordillera), 캐나다의 웨트수웨텐족(Wet'suwet'en), 과테말라의 마야 아치족(Mayan Achi)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 브라질의 과라니-카이오와 이야기

42. 브라질의 원주민 권리 옹호자들은 발견의 교리, 즉 원주민은 야만인이며 식민지의 토지 및 자원 착취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 경제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라니-카이오와 세계관은 실제로 지상의 천국을 표현하고 있으며 식민지 착취는 야만적인 공격입니다.
43. 인류학적, 신학적, 사법적, 정치적 전문 지식이 과라니-카이오와족의 토지 반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브라질이 원주민 땅의 경계를 정하고 이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장려하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라니-카이오와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땅에 대한 우주관을 이해합니다.
44. 테코(Teko)는 생명,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삶의 방식, 그들의 영토의 다양한 생물군을 의미합니다. 테코와 합성된 10개의 단어가 그들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45. 테코 하(Teko ha) - 이곳은 전통적인 영토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환경, 삶이 살아가는 곳,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 테코 마라니(Teko maraney) - 이것은 악이 없는 삶, 악이 없는 땅, 선한 삶, 조화롭게 사는 삶, 하나님/높으신 분/위대한 창조주의 지향 아래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악 없이 살 수 있습니다.
  - 테코아 니(Tekoha Nhee) 땅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숲은 우리 몸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래와 의식이 포함됩니다.
  - 테콘헤 음바에쿠아(Tekonhe mba'ekuaa) - 이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존재와 관계하는 방식, 즉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테콘헤에 음보라이후(Tekonhe'e mborayhu)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으면 그것을 평가하고 사랑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 연대, 존중의 불을 통해 상황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기원입니다.

- 테콘헤에 티(*Tekonhe'e tee*) - 단어들은 매우 신성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하나"라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말합니다.
  - 테콘헤에 안헤테(*Tekonhe'e anhete*)-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
  - 테콘헤에 포라(*Tekonhe'e pora*) - 감사하는 삶은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 테콘헤에 카투(*Tekonhe'e katu*) - 정의로운 삶
  - 테콘헤에 마랑가투(*Tekonhe'e marangatu*) - 카이오와 삶을 살면 위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없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Bem Viver!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46. 과라니-카이오와 세계관에 대한 이 설명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가져온 지상의 천국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 언어, 민족, 부족, 국가 및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높으신 분/위대하신 창조주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림인 지상의 영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과라니-카이오와족은 야만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 10:16에서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과 다른 무리"입니다.
47. 착취적인 식민지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원주민 인권 옹호자들을 야만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농업 사업을 하는 부유한 기업 농부들은 총과 경찰력을 동원해 과라니-카이오와 원주민과 그들의 토지 되찾기 운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1910년 브라질 정부는 8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전통적인 영토에서 쫓아내고 땅을 분할했습니다. 1988년 원주민들은 농부들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싸웠지만, 농부들이 자신들의 땅에 공장과 기타 산업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싶었고 이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라니-카이오와 원주민들이 교회에 긴급하게 요청한 것은 그들의 신성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을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극대화하여 사회 정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48. 2003년 브라질 마투 그로소 두 술 주의 주티(*Juti*) 지방 자치 단체에 있는 타카라(*TAQUARA*) 마을에서 현재까지 489명의 원주민이 살해당했으며, 여기에는 발델리체의 베론 가족 2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식민지 군대가 추장의 경호원인 조카를 살해한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토막낸 다음 시신을 불태우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산 채로 불태웠습니다. 식민군은 추장에게 조카의 고문 영상과 불에 탄 시신 조각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추장은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해주세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9. 과라니-카이오와족은 식민지 시대의 야만적인 압력을 통해 자신들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원주민 공동체는 추장의 리더십과 중앙에 위치한 그녀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전사들은 숲인 테코(*teko*)에 가서 그녀의 형인 예수님에게 부족의 땅과 생존을 위해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녀의 관습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의 경계에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족의 땅을 위해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라니-카이오와족은 영적인 존재이고 식민지 개척자들은 진짜 야만인입니다.

## 권장 사항

기독교 교회는 브라질과 해외 원주민 인권 전사들의 삶과 죽음의 투쟁에 감동하지만, 때로는 식민지 세력이 여전히 전 세계 여러 원주민 국가에 가하는 잔인한 야만적인 진실이 아니라 깃털과 페인트 칠 된 얼굴만을 원합니다.

- i. 교회는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더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공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주민은 그들의 영토, 언어, 문화와 땀해야 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모든 원주민 전통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원주민의 투쟁과 토지 소유권을 지지해야 합니다.
- ii. 교회는 과라니 카이오와 영토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죽음에 대해 서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건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원주민의 목소리가 UN과 헤이그 국제 재판소는 물론 교회의 플랫폼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iii.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주민 추종자들은 이 일을 할 것이지만, 브라질 마토 그로 소 두 술주 주티시 과라니 카이오와 영토의 심장부인 타카라 마을을 포함한 원주민 땅의 즉각적인 경계 확정, 동질화 및 소유권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지지하기 위해 교회 내 다른 동맹들이 나서야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이를 위한 법안에 서명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세요.
- iv. 교회 단체와 정의를 옹호하는 단체는 원주민 인권 및 토지 수호자들이 더 많은 청중에게 '스토리텔링'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비극을 이용해 자신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멈추고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